

04

Style 조선일보

Ultimate
Luxury Lifestyle
Magazine

April 2026
vol. 301

Time to Reflect



Cartier

In The Greatest Strength Lies Softness

레이싱 요트에서 영감을 받아 탄생한 J12는 한계를 넘어선 디자인으로 지평을 확장합니다. 스틸보다 7배 더 견고한 세라믹은 시간이 지나도 마모되지 않습니다. 그 궁극의 강인함은 부드러움에서 시작됩니다. 다이아몬드 파우더로 폴리싱된 세라믹은 실크처럼 매끄러운 촉감을 선사하고, 칼리버 12.1 매뉴팩처 무브먼트는 샤넬 워치메이킹의 탁월한 전문성을 구현합니다. 손목에 닿는 순간, 착용하는 이와 하나가 되는 견고한 부드러움.

J 12

CHANEL



Van Cleef & Arpel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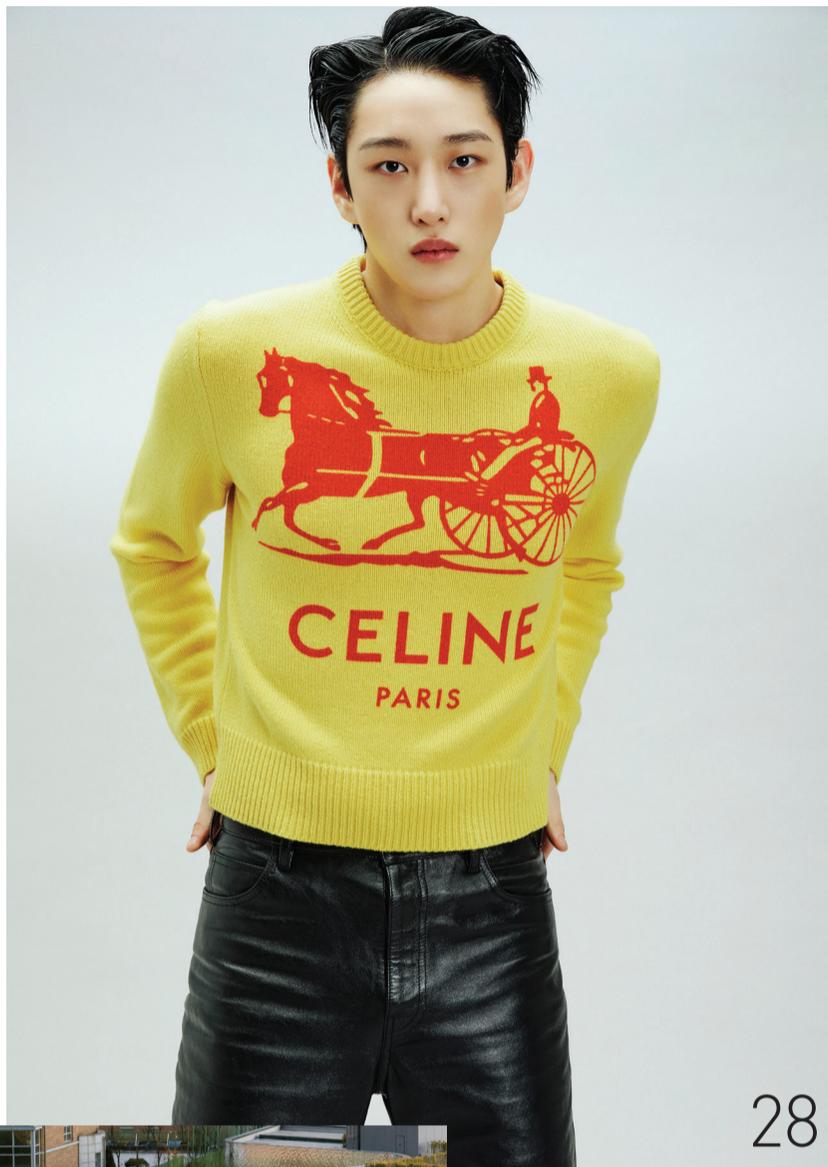
Haute Joaillerie, place Vendôme since 1906





Lucky Spring
Clip

- 08_SELECTION** 아이언부터 아우터와 스커트, 포인트 워치 & 주얼리까지, 필드에서 스타 일리시한 무드를 완성해줄 골프웨어 셀렉션.
- 12_INSIGHT** 국내 및 해외에서 각광받는 이달의 최신 트렌드 & 주목할 만한 소식들.
- 14_ '사라짐'을 전시하는 미술관** 어떠한 기록도 없이 '무형의 상황'에 참여하는 관객 경험만을 남기고 사라지는 리움미술관 티노 세갈 (Tino Sehgal) 개인전은 오브제가 사라진 경험 중심의 미술을 보여주고, 국립현대미술관(MMCA) 서울의 기획전 <소멸의 시학: 삭는 미술에 대하여>는 물질이 사라지고 순환하는 과정을 담은 일련의 작품을 보여준다.
- 16_ 새롭게 그려지는 한국의 문화 예술 지형** 얼마 전까지만 해도 중동에서는 이 지역의 '미술 허브' 자리를 두고 각축전을 펼쳐왔다. 아랍에미리트연합(UAE) 아부다비는 개관을 목전에 둔 '구겐하임 아부다비'를 부각시켰고, 카타르 수도 도하 또한 문화적 존재감을 확장해왔다. 빠르게 변화하는 흐름 속에서 아시아 문화 예술의 중심으로 부상한 서울과 한국 역시 위상을 더욱 견고히 하며 문화 예술 지형을 새롭게 재편해가고 있다.
- 18_NEW WORLD** 2019년에 처음 출시된 '클래쉬 드 까르띠에'는 까르띠에 아이콘 컬렉션의 계보를 이어왔다. 이제는 하나의 대표 컬렉션으로 탄탄히 자리매김한 클래쉬 드 까르띠에가 또 한번 진화한다.
- 22_THE NEXT ICON** 끊임없이 변화하는 불멸의 아이콘 링 컬렉션.



28



16

- 23_BE A GENTLEMAN** 절제된 디자인과 간결한 세이프러트 후트러짐 없는 슈트 핏을 완성해줄 럭셔리 드레스 워치.
- 24_BLANC DEFINED** 기능성 소재와 활동성을 극대화한 실루엣, 일상과 필드의 경계를 넘나드는 라이프스타일 퍼포먼스웨어 브랜드, 랑방블랑(Lanvin Blanc)이 제안하는 골프 룩.
- 25_REFINED STRENGTH** 루이스 트로터의 오페라, 보테가 베네타 2026 겨울 컬렉션.
- 26_FRAMES PERFECTION** 패턴이 돋보이는 프레임부터 클래식한 디자인까지, 선명한 컬러와 입체적인 실루엣으로 시선을 끄는 아이웨어.
- 27_MODERN ELEGANCE** 유려한 라인과 절제된 구조로 시간이 지날수록 깊어지는 우아함을 담은 랄프 로렌 컬렉션의 '더 랄프 미니 크로스 보디 백'.
- 28_PLAY THE SPRING** 가볍고 섬세하게. 남자들의 지금, 스프링 룩 포트폴리오.
- 36_GET THE LIST** 매일의 순간을 우아하고 특별하게. 장인의 기술력과 각기 다른 독창성으로 빛어낸 16개의 다채로운 백 리스트.
- 40_MEN'S STRATEGY** 남자의 피부도 소중하다. 두껍고 거친 피부에 섬세한 터치를 더해줄 맨즈 뷰티 아이템.
- 41_ULTIMATE SKIN REVIVAL** 새롭게 선보이는 수블리마지르 비움(SUBLIMAGE LE BAUME)은 특히 피부과 시술 이후 민감해진 피부를 빠르게 진정시키는 프리미엄 리커버리 밤이다.
- 42_EDITOR'S PICK** 핑크 톤 블러셔와 립, 클렌징 케어, 잔향을 더하는 프레이그런스까지. 지금 주목해야 할 이달의 뷰티 리스트.



2019년 첫 출시 이후 메종의 대표 컬렉션으로 자리한 까르띠에 '클래쉬 드 까르띠에 (Clash de Cartier)'가 새로운 크리에이션을 선보인다. 스티드와 끌루 까레 등 고유한 모티브를 유지하면서 다양한 컬러 스톤, 오닉스, 볼륨 등 다채로운 변형과 디자인적 변화로 컬렉션의 위상을 더욱 공고히 한다. 문의 1877-4326

stylechosun.co.kr
instagram.com/stylechosun
<스타일 조선일보> 홈페이지는 실질적인 정보의 럭셔리 브랜드 갤러리, 품격 있는 라이프스타일을 제안하고 지원하는 다양한 콘텐츠를 준비하고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또 과월호를 언제 어디서나 온라인으로 구독할 수 있는 'E-magazine'이 여러분과 <스타일 조선일보>를 더욱 가깝게 만들어드립니다. 럭셔리 그 이상의 감각과 품격이 함께하는 <스타일 조선일보> 홈페이지, 지금 바로 방문해주세요.
stylechosun.co.kr



12



22

02 3143 9486



Pomellato

NUDO COLLECTION

MILANO 1967

POMELLATO.COM



경쾌한 핑크 컬러의 테크니컬 비스코스 보머 4백43만원 **펜디**.

총 1캐럿의 다이아몬드를 포인트로 더한 포멜라토 투게더 이어링 2천90만원 **포멜라토**.



다이아몬드 인덱스를 적용한 핑크 다이얼의 아쿠아레이서 프로페셔널 200 솔라그래프 34mm 4백50만원대 **태그호이어**.



탈착 가능한 고리가 있어 캐디 백에 달 수 있는 레드 볼 파우치 백 6x9x6cm, 23만8천원대 **랑방블랑**.



하우스의 모노그램 탄생 130주년을 기념해 선보인 알마 BB 3백49만원대 **루이 비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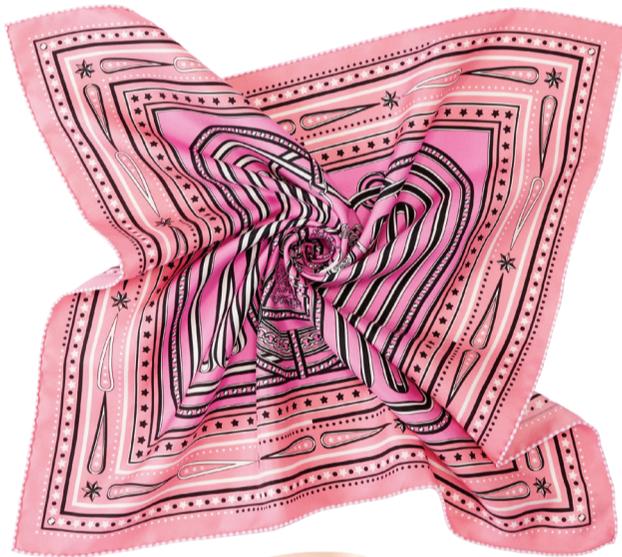
for her Selection

스윙에 최적화된 아이언부터 가벼운 아우터와 포인트 워치 & 주얼리까지, 필드 위에서 스타일리시한 무드를 완성할 골프웨어 셀렉션.

PHOTOGRAPHED BY YOON JIYOUNG, KIM YOUTAE



뜨거운 햇살을 막아줄 라피아 소재의 버킷 햇 1백25만원 **발렌티노 가라바니**.



실크 소재의 Grand Tralala 반다나 55, 55x55cm, 48만원대 **에르메스**.



페기우스 모터브의 펜던트로 장식한 LOVE TROTTER 참 79만원대 **에트로**.

최상의 골프 퍼포먼스를 구현할 수 있도록 설계된 베레스 10 3스타 아이언. 3피스x1세트, 5백95만원대 **훈마 골프**.



유니크한 그래픽 패턴의 여성 시그니처 트롤리 캐디 백. 37x130x30cm, 99만원대 **피레티 골프**.

18K 로즈 골드 소재에 가운데 다이아몬드로 클래식한 포인트를 준 스몰 울루 이터너티 링스 3백98만원 **키린**.



가벼운 폴리에스터 소재로 활동성을 배가한 메자 라이트웨이트 스커트 37만8천원 **제이린드버그**.

아이 골프장에서도 안정적인 착용감을 선사하는 탄탄한 아웃솔의 스니커즈 73만원대 **발리**.



18K 핑크 골드 소재에 유브 스틸 세일링 케이블의 포스텐 브레이슬릿 5백31만원대 **프레드**.



펜디 02-544-1925 **포멜라토** 02-3143-9486 **태그호이어** 02-3479-6021 **랑방블랑** 1800-5700 **발렌티노 가라바니** 02-2015-4655 **루이 비통** 02-3432-1854 **에르메스** 02-542-6622 **훈마 골프** 02-21410-1800 **에트로** 02-3446-1321 **발리** 02-2163-1122 **피레티 골프** 0507-1308-0322 **키린** 02-2118-6228 **제이린드버그** 02-546-1996 **프레드** 02-514-3721

TOD'S



18K 옐로 골드 소재에 화이트와 핑크 골드, 블루 세라믹이 조화를 이루는 콰트로 블루 에디션 네크리스 6백48만원 부채론.

그린 컬러의 컬렉션 앰블럼이 돋보이는 3개의 골프공 및 4개의 골프티가 포함된 앤드류스 골프 키트 1백22만원 루이 비통.

골드 메탈 프레임과 블루 그라데이션 렌즈의 선글라스 28만8천원대 레이벤 by 에실로룩스티카

부드러운 양가죽 소재의 골프 장갑 5만9천원 피레티 골프.

그린 컬러의 스톤워싱 코튼 소재의 디올 맨 캡 84만원 디올.

18K 화이트 골드 소재에 다이아몬드로 포인트를 더한 포멜라토 투게더 링 6백60만원 포멜라토.

환절기 아우터로 제격인 파사미 스웨이드 브레라 보머 재킷 5백85만원 토즈.

고리형 핸들로 손목에 끼워 들고 다지기 좋은 카프 스킨 소재의 백. 14.5x25.5x12cm, 1백78만원 돌체앤가바나.

for him Selection

캐디 백부터 정교한 플레이를 돕는 거리 측정기와 골프공, 자외선을 차단해줄 캡과 선글라스까지 더해 퍼포먼스와 실용성을 강조한 골프웨어 룩. PHOTOGRAPHED BY YOON JIYOUNG, KIMYOU TAE

신축성 있는 스판 혼방 소재로 편안한 착용감을 선사하는 그레이 카키 컬러 백 밴딩 쇼츠 35만8천원 량방블랑.

필드에서 정확한 거리를 측정해줄 핀마스터 2 프로(PINMASTER II PRO) 1백18만원 라이카.

손목에 포인트를 주기 좋은 울루 이터너리 브레이슬릿 3백47만원 키린.

달차 가능한 울 바퀴 존이 있어 이동이 편리한 베레스10 3스타 캐디 백 63만원 혼마 골프.

피레티 골프 0507-1308-0322
부채론 02-3467-8334 루이 비통 02-3432-1854 토즈 02-3448-8233 디올 02-3480-0104 에실로룩스티카 02-569-3914 포멜라토 02-3143-9486 돌체앤가바나 02-3442-6888 량방블랑 1800-5700 키린 02-2118-6228 라이카 1661-0405 혼마 골프 02-21410-1800 호간 02-540-0523 론진 02-3479-1940

슈즈 옆면 톱니 모양의 가죽 H 디테일 장식의 쿨 스니커즈 58만원 호간.

선명한 그린 다이얼과 스틸 브레이슬릿이 어우러져 클래식하면서도 스포티한 무드를 선사하는 하이드로콘퀘스트 42mm 3백만원대 론진.

GRAFF
BUTTERFLY

INSIGHT



Spirit of the Horse

붉은 말의 해, 강인한 에너지를 지닌 '말' 모티브 아이템. (위부터 시계 방향으로) 펜할라곤스 포튜이터스 핀리 EDP 솔티드 피스타치오와 부드러운 레더 향이 어우러진 향수. 말을 형상화한 보틀 디자인이 눈길을 사로잡는다. 75ml 44만8천원. 문의 080-363-5454 **몽블랑 레전드 오브 조디악 홀스 컵 링크스 레전드 오브 조디악 홀스 컬렉션**을 기념하는 실버 소재의 컵스 링크 79만원. 문의 1877-5408 **카린 호스 보보 펜던트 붉은 말의 해를** 맞아해 선보였으며, 18K 화이트 골드 소재에 루비, 다이아몬드, 블랙 다이아몬드를 세팅했다. 1천4백70만원. 문의 02-310-5189 **버버리 레더 호비 홀스 챔 스무드 가죽으로** 제작한 호비 홀스 모양의 챔 61만원. 문의 080-700-8800 포토그래퍼 **최민영 에디터 신정민**



Blue Reverie

최근에 공개된 다이아나 벨 에포크 마레아(Belle Époque Marea) 네크리스는 까사 다이아나 청담 오픈을 기념해 한국에서만 단독으로 선보이는 리미티드 에디션이다. 이탈리아어로 바다의 물결을 뜻하는 마레아라는 이름은 바다를 닮은 신비로운 컬러로 알려진 파라이바 투르말린의 진귀한 빛에서 영감을 받아 명명됐다. 브랜드의 상징적인 크로스 디자인에 푸른 파라이바 투르말린을 세팅한 벨 에포크 마레아는 메종의 하이 주얼리 노하우와 장인 정신이 집약된 작품으로, 높은 소장 가치를 지녔다. 문의 02-6204-1924



Firm Intentions

샤넬은 올해 또 한번 하우스 워치메이킹의 시작점이자 상징적 세라믹 워치인 J12를 조영한다. 이를 위해 전설적인 슈퍼모델 지젤 번천과 클레망 사베르노가 출연하는 새로운 캠페인을 공개했다. 샤넬은 J12 워치에 영감을 준 '물'로 다시 돌아가 바다를 배경으로 촬영했다. 이번 캠페인에서 샤넬은 비단처럼 부드러우면서도 강철처럼 강인한 J12의 이중적 매력을 담고자 했다. 이 감각적인 사진에서 J12의 고요하면서도 강렬한 매력과 감각적 특성, 브랜드와 모델들이 추구하는 본질적 가치를 느껴보길 바란다. 문의 080-805-9628

Watches & Fashion • 이달에 주목해야 할 워치 & 패션 셀렉션



Mastering Time 오메가 스피드 마스터 문워치는 클래식 크로노그래프 디자인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지름 42mm의 타임피스다. 스몰 세컨즈 서브 다이얼, 30분 카운터와 12시간 카운터를 갖추었고, 메인 다이얼의 화이트 마넨 트랙과 서브 다이얼의 블랙 마넨 트랙이 이루는 선명한 컬러 대비가 돋보인다. 블랙과 화이트 다이얼의 조화에 맞춰 블랙 세라믹 베젤에는 화이트 에나멜 타카미터 스케일을 정교하게 채워 넣었다. 50시간 이상의 파워 리저브를 자랑한다. 1천4백만원대. 문의 02-543-2999



Big and Deep Impact 지난 1월 이탈리아 밀라노 LVMH 워치 워크에서 컬러와 소재의 장인 워블로가 새로운컬러 레인지를 공개했다. 바로 '콜 블루'. 신비롭고 절제된 미네랄 감성을 은은하게 발산하며 선명하고 생동감 있는 컬러로 독창성을 자랑한다. 워블로는 이 스톤 톤 같은 깊이 있는 색감을 빅뱅과 스피릿 오브 빅뱅 모델에 적용해 총 4점의 워치를 선보였다. 해당 모델은 빅뱅 원 클릭 골 블루 다이아몬드, 워블로만의 모하고 매력적인 색감의 세계로 또 한번 빠져들 시간이다. 문의 02-540-1356



Classic Reimagined 루이 비통이 모노그램 캔버스로 완성한 '스콰이어 이스트 웨스트(Squire East West)' 백을 출시했다. 길게 뻗은 실루엣에 부드러운 곡선을 더해 알파 백의 아카이브를 현대적으로 풀어냈으며, 슬림한 스트랩과 브라운 레더 트리밍, 골드 톤 패들 록 디테일로 아이코닉한 무드를 강조했다. 3백20만원대 문의 02-3432-1854



Timeless in Black 샤넬이 2026 S/S 시즌을 맞아 클래식한 더비 슈즈를 선보였다. 은은한 광택의 블랙 레더 위로 깔끔하게 이어진 절개선과 단정한 토캡 디테일이 특징. 균형 잡힌 형태와 견고한 아웃솔. 매끈하게 마감된 라스트가 클래식한 무드를 더해 데일리부터 드레스업까지 포인트 아이템으로 제격이다. 문의 080-805-9628

SPACE



마이알레 리빙룸 이태원

자연과 리빙, 오브제를 결합한 라이프스타일 소품 마이알레 리빙룸 이태원이 누구나 방문 가능한 상시 공간으로 새롭게 확장됐다. 그동안 업계 관계자와 협업 파트너를 중심으로 전시, 토크, 팝업 등을 선보이며 호응을 얻어온 이 공간은 '거실'이라는 개념 아래 사적인 리빙룸과 자연 중심 리빙룸, 크게 두 가지 결로 구성된다. 첫 시즌의 디스플레이 콘셉트는 'Shape of Green'. 리빙룸 1은 가구와 테이블웨어, 오브제를 중심으로 일상의 밀도를 구축하는데, 서울과 베를린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근식의 kokiri 테이블, 현성오브제의 선반, 서울대 공예 작가들이 만든 키친웨어 등 이태원점에서만 만날 수 있는 제품군 위주로 꾸러진다. 또 메종 드 바캉스(Maison de Vacances) 같은 패션 감각이 돋보이는 텍스타일 브랜드, 그리고 '생크림 타월'로 유명한 일본 이마바리 기반의 트루타월(TRUE TOWEL) 팝업도 함께 선보인다. 리빙룸 2는 식물과 빛, 테라코타 바닥을 중심으로 자연의 리듬을 공간 안으로 끌어들이는 데. 이 공간에는 벨기에 도자 브랜드 도마니(DOMANI)의 대형 플랜터가 조형적 중심을 이루고, 유리 오브제 브랜드 구악스(GUAXS)와 헨리 딘(Henry Dean) 등이 빛과 투명성을 통해 자연의 변화를 드러낸다. 벽면에는 덴마크 브랜드 답달(The Dybdahl Co.)의 보태니컬 아카이브가 현대적으로 재구성된다. 지하에 위치한 워크숍 룸은 마이알레가 전시, 담론, 팝업 등 시즌별 콘텐츠를 선보이는 공간. 첫 번째 전시 (Stools, the Companion Object)에서는 스톨을 일상 가까이에 두는 '동반적 오브제'로 바라본다. 4월 8일 오픈. 주소: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27길 31-8 운영 시간: 수~일 12:00~19:00(월·화 휴무) 글 **고성연**



LANVIN
BLANC



‘사라짐’을 전시하는 미술관

오늘날 미술관은 더 이상 단순히 작품을 보존하고 전시하는 장소가 아니다. 점점 더 경험을 조직하고, 시간을 연출하며, 관객의 감각과 기억을 설계하는 공간으로 변모하고 있다. 사진, 텍스트 등 어떠한 기록도 없이 오로지 ‘무형의 상황’에 참여하는 관객 경험만 남기고 사라지는 리움미술관 티노 세갈(Tino Sehgal) 개인전은 이러한 변화의 핵심을 선명하게 드러낸다. 그의 작품은 오브제가 사라진 경험 중심의 미술을 보여주는 한편, 국립현대미술관(MMCA) 서울의 기획전 <소멸의 시학: 식는 미술에 대하여>는 물질이 사라지고 순환하는 과정을 담은 일련의 작품을 보여준다. 두 전시는 서로 다른 방식으로 경험을 조직하지만, 결국 공통적인 질문으로 수렴한다. ‘미술관은 무엇을 남기는가?’, ‘우리는 무엇을 기억해야 하는가?’



아니면 어색한 문구에 쓴웃음을 짓든, 이 같은 반복 구호는 일종의 조각처럼 공간을 채운다. 미술관 내부 전시에서도 이처럼 ‘오브제 없는 조각 작업’은 이어진다. 리움이 소장한 근대 조각 거장 오귀스트 로댕의 조각으로 둘러싸인 채 한 쌍의 남녀(퍼포머)가 로댕의 ‘키스(The Kiss)’를 비롯해 미술사 속 다양한 키스 장면을 라이브로 보여준다. 4명의 퍼포머가 각각 바이올린과 축구공, 자전거를 다루면서 서로의 움직임에 반응하는 역동적인 광경이 펼쳐지기도 한다. 이처럼 신체와 언어, 그리고 관계를 매개로 형성되는 자신의 작업을 티노 세갈은 ‘구성된 상황(constructed situations)’이라 부른다. 그가 ‘해석자(interpreters)’라고 부르는 퍼포머들이 노래하고 춤을 추거나 말을 건네면서 일어나는 관객 간의 상호작용을 통해 구현되는 상황이다. 관객은 해석자들과 마주하면서 관계 미학이 스며든 이 무형의 상황을 작동시키는 참여자가 된다. 이번 리움 전시에서는 모두 8점의 ‘구성된 상황’이 펼쳐진다(그가 엄선한 리움 소장품과 함께 큐레이팅한).

전통적으로 미술은 물질을 남기는 예술이었다. 회화, 조각, 설치의 시간 속에서도 지속되는 형태를 전제로 하며, 미술관은 이를 보존하고 축적하는 기관으로 기능해왔다. 그러나 물질이 남치는 시대에 사라짐의 미학을 전면에 내세우며 이 전제를 근본적으로 흔드는 동시대 미술도 있다. 작품은 더 이상 고정된 오브제가 아니라, 일시적으로 발생하고 곧 소멸하는 사건이 된다. 퍼포먼스는 끝나고, 물질은 부식되며, 전시는 해체된다. 남는 것은 대상이 아니라 경험과 기억, 그리고 시간의 흔적이다.

물질 없는 예술, 새롭지는 않지만 참신한

영국 런던 출생의 인도/독일계 현대미술가로 베를린을 주 무대로 활동하는 티노 세갈(Tino Sehgal, b. 1976)의 작업은 이러한 전환을 극단적인 방식으로 구현한다. 그는 타 작가의 작품과 병치는 하지만 스스로 물질적 형태를 만들어내지 않고 인간의 몸과 언어, 관계만으로 상황을 빚어내며, 사진이나 영상 기록조차 원칙적으로 남기지 않는다. 전시장에는 오직 사람들의 움직임과 소리, 그리고 관객과의 상호작용만이 존재한다. 작품은 그 순간에만 발생하고, 종료와 동

1 서울 한남동 소재의 리움미술관에서 진행 중인 <티노 세갈(Tino Sehgal)전 포스터. M2, 로비, 정원에서 펼쳐진다. 오는 6월 28일까지 진행될 예정. Design by 김영삼

2 리움미술관 가는 길목, 작가는 사진, 영상, 도록 등 자료를 일절 남기지 않고, 관람객들도 촬영 없이 ‘경험’과 ‘기억’만 안고 돌아가게 된다. 미술관 내부 전시장에는 각 작품 사이에 존재하는 펠릭스 곤잘레스-토레스의 초록색 비즈 커튼(‘무제’라는 작품)이 티노 세갈의 작업 사이에서 자연스럽게 칸막이 역할을 한다. Photo by 고성연

3 3월 3일 전시 개막에 앞서 서울을 찾아 간담회에 참석한 티노 세갈. Photo by 김제원 이미지 제공. 리움미술관



시에 사라진다. 사실 개념이나 퍼포먼스를 내세우는 예술의 형식 자체가 새로운 건 아니다. 그렇다면 30대 중·후반에 2013년 베니스 비엔날레에서 최고 영예인 황금사자상을 꺾은 이래 동시대 미술의 대표 작가로 자리매김해온 티노 세갈의 작업은 과연 어떻게 차별되는 걸까? 지난 3월 초 리움미술관에서 막을 올린 그의 개인전 <티노 세갈>은 건물 밖에서 안으로 들어가는 입구부터 흥미로운 장면을 빚어낸다. 3명의 여성이 갑자기 리듬을 탄 몸짓을 하며 구호를 반복하는데, 영어로 ‘디스 이즈 소 컨템퍼러리!(This is so contemporary!)’라는 문장이다. 자꾸 듣다 보면 절로 흥이 나는 교감은 차치하고 ‘이건 너무나도 현대적/동시대적이어야’라는 뜻 자체는 의미심장하다. 대놓고 허세를 떠는 건, 언뜻 조소적인 뉘앙스로 느껴진다. ‘컨템퍼러리’라는 말 자체의 공허함을 드러내는 비판적 장치처럼. 미술계에서 이 용어를 둘러싼 해묵은, 하지만 아직도 정리되지 않은 논의를 나몰라라 하고 그저 대중적으로는 ‘쿨(cool)’한 현재의 흐름을 ‘올려치기’ 하는 관성을 떠올리게 한달까. 물론 해석은 각자의 몫으로 뒀겠지만 말이다. 이들을 맞닥뜨린 관람객이 덩달아 리듬을 타든,

그 어떤 기록도 일절 남기지 않고, 관람객에게도 촬영을 허용하지 않는 티노 세갈의 전시는 모든 것이 데이터화되는 시대에 전자 매체를 통하지 않는 예술의 본질적 의미를 재고하게 한다. 정치경제학과 현대무용을 탐구했으며, 한국의 울산 같은 독일 공업도시에서 어린 시절을 보낸 적 있는 그는 ‘물질 과잉의 소비 시대에 비물질적 가치를 자연스럽게 고민하게 되었다고 전시 개막에 앞서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말했다. 예술을 자본주의적 생산 방식에서 분리해 비물질적 가치로 치환하려는 시도를 지니게 된 배경이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기존 오브제의 해체를 의도한 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우리는 한 번도 근대적인(modern) 적이 없었다며 근대의 허구성을 지적한 프랑수아 철학자 브뤼노 라투르식으로 ‘파열을 일으킬 필요는 없다(You don't need to make a rupture)’고 말하면서. 이렇듯 ‘기억과 ‘경험’으로 남는 예술은 그의 설명처럼 오늘날의 과정(시간) 기반의 경제에 걸맞은 방식으로 느껴진다. “시간 기반 예술은 탈산업사회로 넘어가는 현대에 적합한 형식이고, 현대사회를 잘 반영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개별적인 것보다 관계나 연결이 더 중시되는 사회가 되었기 때문이지요. 이런 점에서 예술가들



은 자기 시대의 역사화를 그리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제시하는 비물질적 작업은 여전히 미술관에 의해 수집되고, 계약(‘구두’ 형태라지만)을 통해 거래되며, 제도 안에서 유지된다. 즉 완전히 사라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다른 방식으로 ‘남겨진다’. 어쩌면 오히려 더 엄격한 규칙과 수행 조건을 필요로 하며, 보이지 않는 방식으로 작품의 형태를 고정시키는 것 아닐까? 해석자들에게 행위의 작은 변수가 허용되지만, 이 역시 규정된 수행 조건 속에서 이뤄지기 마련이다. 그 결과, 반복 가능한 상황으로 남는다. 확실히 물질을 덜 낭비하는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말이다. 티노 세갈은 ‘미술이라는 게임의 지속’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했는데, 전략적 관점에서 보자면, 참으로 영리하다.

‘불멸의 수장고’ 이후의 시대를 상상하기

‘우리는 근대화와 생태화 사이에서 선택해야 한다.’

— 브뤼노 라투르, 《존재양식의 탐구》 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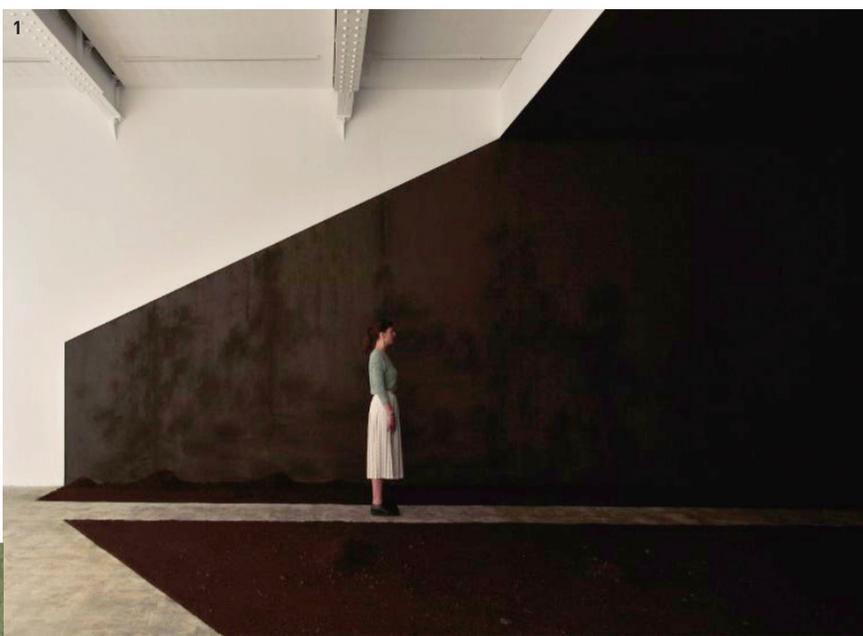
한편 《소멸의 시학: 식는 미술에 대하여》는 ‘사라짐’ 자체를 보다 직접적인 주제로 다룬다. 거의 무한하게 정보를 쌓아 올릴 수 있는 가상공간이 아닌 현실 세계의 수장고가 지닌 물리적 제약을 놓고 볼 때, ‘보존과 소멸은 끝없이 고민해야 할 사안이다. 이 전시에서 대다수의 작품은 완결된 형태를 유지하지 않는다. 썩고, 변형되고, 붕괴되는 과정이 작품의 일부가 된다. 예를 들어 MMCA 서울 전시장 ‘서막’ 섹션에서, 관람자는 먼저 베를린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아사드 라자의 ‘네오소일(neo-soil)’ 흙을 사뿐사뿐 밟으며 공간에 들어선다. 서울의 폐기물과 시민 참여로 제작된 이 비옥하고 촉감이 경쾌한 흙은 원하는 이들에게 나눠진다. 관람자와 공동체 경험을 연결하는 공유와 재생의 매개체인 셈이다. 이은재의 ‘이제 근대 모서리를 닦아라-서

문’(2023)은 달걀노른자로 만든 물감을 이용한 템페라 기법을 쓰는데, 쉽게 갈라지고 바래는 유약한 물질의 필연적 한계를 알면서도 ‘그림을 그린다’는 것의 의미를 구하려는 태도가 엿보인다.

1막 ‘되어가는 시간’에서는 물질의 소멸과 변화를 보여준다. 해변 잔해 조각으로 만든 세실리아 비쿠냐의 ‘작은 벽(카리오스)’은 취약함과 허망함을 아름다움으로 전환하며, 여다함의 ‘향연’은 뜨개질로 만든 향로에서 ‘쭈처럼 피어오르는 연기와 공간의 움직임’을 통해 시간과 변화의 수행적 경험을 전달한다. 2막 ‘함께 만드는 풍경’에서는 인간을 넘어

비인간 존재가 공동 창작자로 등장한다. 텔시 모델로스의 ‘엘 오스쿠로 데 아바호’와 김방주의 ‘별목과 불은 검은 흙과 불가 피한 스러짐을 통해 죽음을 환기시키지만, 동시에 생명과 순환으로 연결된다. 유코 모리의 ‘분해는 썩어가는 과일에서 에너지를 끌어내 빛과 소리를 발생시키고, ‘사회적 발효’라는 개념 아래 탐구적 자세를 견지해온 라이스 브루잉 시스템즈 클럽의 ‘채널링 하우스’는 유기물과 무기물이 함께 순환하며 창작과 소멸의 경계를 허문다.

이렇듯 관객은 안정된 대상을 감상하는 대신 흙과 곰팡이, 발효액 등 다양한 재료를 통해 변화와 사라짐의 과정을 목격하고, 단순한 쇠락이 아닌 인간과 자연, 시간과 관계의 순환 속에서 피어오르는 소멸의 의미를 곱씹어보게 된다. ‘남는 것’과 ‘남지 않는 것’ 사이의 긴장을 체험하면서, 이러한 작업은 미술관이 더 이상 ‘보존’만을 수행하는 기관이 아니라, 사라짐을 경험하게 만드는 장치가 되었음을 보여준다. 여기서 중요한 건 결과가 아니라 과정이며, 완성된 형태가 아니라 시간 속에서 진행되는 변형이다.



- 1 텔시 모델로스(b. 1967, 보고타 거주), ‘엘 오스쿠로 데 아바호’(2023). <엘 오스쿠로 데 아바호>(마리안 굿텐 갤러리, 파리, 2023) 전시 모습. 작가·프로젝트 풀필 아트 스페이스 제공. Photo by 레베카 파뉴엘
- 2 《소멸의 시학: 식는 미술에 대하여》 전시 포스터. 국립현대미술관(MMCA) 서울에서 오는 5월 3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 3 이은재(b. 1983, 서울 거주) 작가는 에그 템페라로 회화의 표면을 이루는 물질성과 시간성을 탐구한다. ‘그를피’, ‘이른’, ‘플루토 23L1’은 지층을 떠올리게 하는 회화의 표면에서 시간을 드러내는 작가의 방법론을 잘 보여준다.
- 4 김방주(b. 1985, 서울 거주), ‘별목과 불’(2026) 설치 모습. 미술관에서 얻은 재와 나무, 보이지 않는 열을 활용한 작업으로 죽음이 깃들여 있는 삶이라는 모순에 주목한다.
- 5 인간과 비인간 사이의 상호작용을 이끌어내는 작업을 선보여온 아사드 라자(b. 1974, 베를린 거주)의 작업 ‘흙수’(2020).
- 6 《소멸의 시학: 식는 미술에 대하여》 2막 설치 모습. 세실리아 비쿠냐(b. 1948, 뉴욕과 산티아고 거주)의 ‘작은 벽(카리오스)’(2019) 등의 작업과 유코 모리(b. 1980, 도쿄 거주)의 ‘분해’(2025) 등이 보인다. ※ 2~6 이미지 제공: MMCA

경험 디자인 같은 콘텐츠 플랫폼은 동시대 미술관의 숙명일까?

두 전시 사례는 서로 다른 방식으로 작동하지만, 공통적으로 미술관의 기능을 재정의한다. 미술관은 더 이상 물질을 저장하는 공간이 아니라, 순간을 경험하고 기억을 생산하는 공간이 된다. 이러한 상황은 오늘날의 미술관이 놓인 구조적 조건을 드러낸다. 미술관은 한편으로는 경험을 제공하는 플랫폼으로서 관객의 참여와 몰입을 유도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작품을 수집하고 역사화하는 제도로서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이러한 긴장의 무게 속에서 미술관은 관객이 더 이상 해석하는 주체가 아니라, 경험을 수행하는 참여자가 된다고 부르짖는다. 하지만 이 참여는 완전히 자유롭지 않다. 이미 설계된 상황 속에서 이뤄지며, 특정한 방식으로 유도된다. 동시대 미술이 점점 더 경험 디자인, 즉 일종의 UX와 유사한 구조를 띠게 된다는 주장이 설득력 있게 다가오는 이유다. 게다가 ‘관람자가 작품의 일부가 된다’는 티노 세갈의 명제는 비판적 거리를 생성하기보다 경험을 지나치게 매끄럽게 조직하는 방식으로 작동할 수도 있다. 갈등이나 균열 없이 흐르는 참여는 오히려 비판적 긴장의 약화를 의미하는 건 아닐까. 《소멸의 시학: 식는 미술에 대하여》 역시 물질의 붕괴와 사라짐을 통해 ‘지금-여기’를 사유하게 하지만, 이 경험이 그저 소멸을 ‘보여주는 것’에 머무는 방식으로 소비되는 것은 아닌지, 과연 제도적으로 의미 있는 변화로 이어질지에 대한 질문이 남는다.

분명한 점은 ‘사라짐의 미학’이 단순히 물질을 제거하는 데 그치지 않고, 미술이 무엇을 남기고 어떻게 남기는가에 대한 조건 자체를 재구성한다는 점이다. 작품은 더 이상 대상이 아니라 사건이 되고, 의미는 고정된 메시지가 아니라 경험에서 발생하며, 지속성은 물질이 아니라 기억과 구조에 자리 잡는다. ‘패러다임의 전환’까지는 거창하지만, 많은 사유의 씨앗을 던져준다. 어쩌면 우리에게 의미 있는 건, 그 모든 것이 사라진 후에도 여전히 남아 있는 어떤 불편한 감각, 완전히 해석되지 않는 잔여일지도 모르겠다. 글 고성연





새롭게 그려지는 한국의 문화 예술 지형

199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스페인의 쇠락한 공업도시였던 빌바오는 '구겐하임 미술관 빌바오'를 품에 안으며 문화 예술 관광지로 자리매김했다. 나오시마, 테시마, 이누지마를 포함한 일본 세토우치 3도는 '베네세 아트 사이트 나오시마' 프로젝트를 필두로 현대미술의 성지로 거듭났다. 현재는 불안정한 세계 정세로 주춤하는 모양새지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중동에서는 세계적인 미술관과 아트 페어 유치에 앞세워 이 지역의 '미술 허브' 자리를 두고 각축전을 펼쳐왔다. 아랍에미리트연합(UAE) 아부다비는 2017년 문을 연 '루브르 아부다비'와 더불어 개관을 목전에 둔 '구겐하임 아부다비'를 전면에 부각시켰고, 카타르 수도 도하는 '카타르 국립박물관'과 '이슬람 예술박물관' 등을 중심으로 문화적 존재감을 확장해왔다. 올해 2월 도하에서는 세계적인 아트 페어 브랜드를 내세운 '아트 바젤 카타르'가 성공리에 개최되었다. 당초 예정된 11월 개관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아부다비에서 '프리즈 아부다비'가 기다리고 있다. 이처럼 전략적으로 설계된 미술관과 아트 플랫폼은 도시의 흐름에 스며들어 문화적 거점 역할을 하며, 지역의 정체성을 조용히 빚어내는 장이 된다. 빠르게 변화하는 흐름 속에서 아시아 문화 예술의 중심으로 부상한 서울과 한국 역시 위상을 더욱 견고히 하며 문화 예술 지형을 새롭게 재편해가고 있다.

#일상에 스며드는 예술, 서울시립 서서울미술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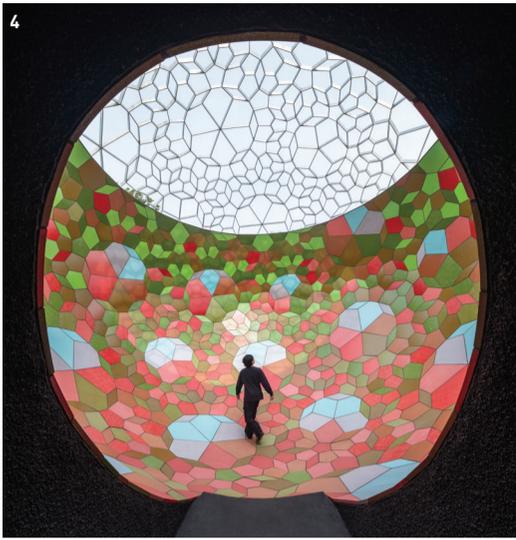
'서울시립 서서울미술관(이하 서서울미술관)'의 개관 기자 간담회 일정을 안내받고 가장 먼저 든 생각은 '드디어 금천구에 공립 미술관이 개관하는구나'였다. 사실 서서울미술관 건립 논의는 오래전부터 이어져왔다. 1995년 구로구에서 분구한 이후 금천구는 독자적인 문화 공간 조성을 꾸준히 바라왔고, 2015년 무렵부터 본격적으로 미술관 사업을 추진했다. 2022년 착공 소식이 전해지기도 했지만, 서울 중심부에서 벗어난 금천구에 미술관이 들어선다는 사실은 여전히 먼 이야기처럼 느껴졌다. 그 사이 대다수 기자들은 이 소식을 기억 저편에 미뤄둔 채, 미술관과 갤러리가 밀집한 삼청동·한남동·청담동 일대를 주로 드나들며 취재를 이어왔다. 그러나 그 시간 동안에도 서서울미술관은 차근차근 형태를 갖춰갔고, 마침내 지난 3월 12일, 문을 열었다. 서서울미술관(이하 SeMA)의 일곱 번째 분관인 서서울미술관은 서남권 첫 공립 미술관이자 서울시 최초의 공공 뉴미디어 특화 미술관이다. 건축은 코스모스 율동도로 유명한 더 시스템 랩의 김찬중 건축가가 맡았다. 고층 아파트가 밀집한 주변 분위기와 달리, 주차장을 포함해 지하 2층과 지상 1층, 옥상으로 이루어진 연면적 7,186㎡(2천1백73평) 규모의 저층형으로 설계해 보는 이의 숨통을 틔워준다. 문화 소외 계층도 편히 오갈 수 있게 하겠다는 미술관의 지향점을 반영하고자 금나래중앙공원의 중심 보행로를 따라 개방형으로 건물을 배치해 접근성을 높인 점도 눈에 띈다. 개관 특별전으로는 SeMA 퍼포먼스 <호흡>, 건립 기록전 <우리의 시간은 여기서부터>가 진행 중이며 오는 5월 중에는 뉴미디어 소장품전 <서서울의 투명한 | 청소년 | 기계>를 개최할 예정이다.

1 서울시립 서서울미술관은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금나래중앙공원의 중심 보행로를 따라 개방형으로 건물을 배치했다. 사진: 김태동
2 작품은 전시장에 머무르지 않고 배움 공간, 로비, 잔디마당 등 미술관 곳곳에 설치됐다. 알루, '신인호 랜딩', 2026, 2,414×2,414×3,800cm, 10분, 사운드, 코르텐강 판 조형에 LED 패널, 스피커, CG, 메타 휴먼, 생성형 인공지능, 스톱모션 애니메이션.
3 개관 특별전 <우리의 시간은 여기서부터>의 전시작 중 하나인 신지선 작가의 '서서울피디아: 안양천'은 증강현실을 주요 매체로 삼아 서울 서남권에 축적된 장소의 기억을 소환하는 프로젝트다. 신지선, '서서울피디아: 안양천', 2026, AR, 컬러, 사운드. ※ 1~3 이미지 제공: 서울시립 서서울미술관

<호흡>은 총 27명(팀)의 작가가 참여해 '호흡'을 주제로 신체와 사회, 예술의 교차점을 탐구하는 퍼포먼스 작품을 선보인다. 김태동, 무진형제, 브이엔알, 신지선, 컨템포로컬이 참여한 <우리의 시간은 여기서부터>는 사진, 설치, 증강현실을 포함한 뉴미디어 등 여러 장르를 넘나들며 미술관 건립 과정과 서남권 지역(민)에 새겨진 시간의 서사를 조명한다. 작품은 전시장 안에만 머무르지 않고 배움 공간, 로비, 잔디마당 등 미술관 곳곳에 포진해 다양한 방식으로 예술을 경험하도록 유도한다. 한편 잔디마당에서는 미술관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SeMA 프로젝트V의 첫 번째 결과물인 알루 작가의 비디오 설치 작품 '신인호 랜딩'을 만날 수 있다. 팔각형으로 배열된 LED 패널에서 86세 K-팝 아이돌이자 (작가의 외할머니이며) 데이터 뱅크를 침략하는 '할머니 해적' 신인호가 서서울의 시공간적 데이터 위에 착륙하며

생성하는 다성적 오페라 작품이다. 이제 막 문을 연 서서울미술관이 국내 미술계에서 어떤 위상을 갖게 될지는 지켜봐야 할 것이다. 다만 현재의 모습을 보면, 뉴미디어에 중심축을 두고 새로운 매체와 언어를 실험하려는 의지, 그리고 개관 특별전에서 퍼포먼스 아트를 전면에 내세워 다양성을 꾀한 점에 높은 점수를 주고 싶다. 일단 지역 주민들의 반응은 고무적이다. 기자 간담회 당일 오전, 대중에게 개방되기 전이었음에도 유모차를 끌고 공원길을 따라 주변을 산책하는 이와 호기심 가득한 표정으로 미술관 인근을 서성이는 어른들이 눈에 띄었다. '신인호 랜딩'을 감상하는 동안에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왔는데, 이는 잔디마당과 마주한 초등학교에서 흘러나온 것이었다. 펜스나 경계 없이 열린 미술관은 이처럼 일상 속 풍경으로 자연스럽게 녹아들고 있었다.





#지역 활성화를 도모하는 효과적인 방법, 신안 1섬 1뮤지엄 사업과 두손갤러리

서서미미술관이 일상과 예술의 경계를 허무는 역할을 한다면, 전남 신안에서 진행 중인 '1섬 1뮤지엄' 사업은 '빌바오 효과', '나오시마의 기적'을 기대해볼 수 있는 사례다. 1천 개 이상의 섬으로 이루어진 신안은 섬마다 대표 박물관과 미술관, 문화 시설 등을 조성하는 1섬 1뮤지엄 사업을 진행 중이다. 총 30개 소 오픈을 목표로 20개 소는 조성을 완료했고, 7개 소는 형성 중, 3개 소는 조성 추진 예정이다. 그중에는 올라푸르 엘리아손, 안토니 고품리, 마리오 보타 등 세계적인 크리에이터들과의 협업으로 선보이는 미술관과 설치 작품 등이 포함된다. 글로벌 작가의 참여 소식에 쏠린 대중의 관심에 가장 먼저 화답한 것은 2024년 말 공개된 올라푸르 엘리아손의 '숨결의 지구(Breathing earth sphere)'였다. 6년에 걸쳐 도초도에 조성된 이 작품은 과거 화산활동으로 형성된 도초도의 독특한 지형에서 영감받아 자연의 생명력과 에너지를 시각화한 작품이다. 벽, 천장, 바닥이 존재하지 않도록 구형의 공간으로 조성한 작품 안에 들어서면 '지금, 이 순간, 여기에' 존재하고 있음을 감각하게 된다.

이외에도 2026년 하반기 준공 예정인 '플로팅

뮤지엄'과 '인피니토 뮤지엄'에 대한 관심도 꾸준하다. '이누지마 아트 프로젝트'를 이끈 야나기 유키노리가 참여한 플로팅 뮤지엄은 김환기 화백의 고향인 안좌도에 조성 중이다. 신촌저수지 위에 7개의 큐브 건물이 떠 있는 수상 미술관 형태로 1섬 1뮤지엄 사업 중 가장 혁신적 시도로 평가받는다. 거울처럼 안좌도의 하늘과 저수지의 물결을 반사해 주변 풍경과 함께 숨 쉬는 듯한 분위기를 자아내는 건물 외벽이 인상적이다. 총 7개 동 중 4개 동은 야나기 유키노리의 상설 전시로 채워질 예정이며, 나머지 3개 동은 기획 전시와 영상 기록실, 운영을 위한 기능적 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조각가 박은선과 리움미술관을 설계한 것으로 잘 알려진 건축가 마리오 보타와의 협업으로 탄생하는 인피니토 뮤지엄은 자연도에 들어선다. 이름처럼 무한(infinite)이라는 주제 아래 자연과 예술이 경계 없이 영원히 이어지는 공간으로 꾸러지게 된다. 미술관은 아니지만 침체된 지역을 활성화한다는 맥락에서 '두손갤러리'의 행보도 주목할 만하다. 지난 2월 말 두손갤러리는 답십리 고미술 상가로 이전 개관했다. 답십리 고미술 상가는 어지간한 미술 애호가들에게 미지의 영역인 터라 이 같은 결정은 많은 이들의 놀라움을 자아냈다. 그러나 1969년 김영수 대표에 의해 황학동과 충무로에서

4 올라푸르 엘리아손의 설치 작품 '숨결의 지구(Breathing earth sphere)' 안에 들어서면 '지금 이 순간, 여기에' 존재하고 있음을 감각하게 된다. Olafur Eliasson, '숨결의 지구', 2024, Installation view: Docho Island, Shinan County, South Jeolla, South Korea, 2024 Photo: Kyungsub Shin, Commissioned by Shinan County © 2024 Olafur Eliasson 이미지 제공_Studio Olafur Eliasson
5 아직 조성 중인 '플로팅 뮤지엄'은 신안의 특산물인 천일염의 결정체 모양을 본뜬 7개의 큐브가 저수지 위에 떠 있는 수상 미술관이다. 6 조각가 박은선과 건축가 마리오 보타의 협업으로 조성 중인 '인피니토 뮤지엄'. 7 두손갤러리의 이전 개관전 <The Room I'm In: 내가 머무는 방> 전시 모습. 이미지 제공_두손갤러리

고미술상으로 출발한 두손갤러리의 역사를 되짚어보면 고개를 끄덕일 만한 선택일지도 모르겠다. 두손갤러리는 이전 개관 행사로 고미술과 앤티크, 공연과 야간 개장을 결합한 행사 '케데헌의 고향 - 답십리 엔틱 야시장'을 이틀간 진행했는데, 당시 취지문에서 '답십리 고미술 상가를 대한민국 전통문화의 중심 상권으로 재정 의하고, 나아가 세계가 찾는 전통문화의 거리로 도약시키고자 그 의의를 공표한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전 개관 후 첫 공식 전시로는 미켈레 데 루키 개인전 <The Room I'm In: 내가 머무는 방>을 선보이고 있다(4월 30일까지). 필자 역시 낯선 고미술 상가를 해마다 도착한 두손갤러리의 새 공간에 전시 작품과 갤러리 소장 고미술품이 조화롭게 진열된 모습을 보며, 고미술품에 대한 심리적 거리감이 한층 허물어지는 경험을 했다. 게다가 지난해 초부터 답십리 고미술 상가에는 소품 상점 '고복회', 젊은 감각의 고미술품 큐레이션 상점 '오브(of)', '호박포크아트갤러리' 등이 입점하며 조금씩 주목받고 있는 터. 모두의 행보가 모여 내는 시너지 효과로 답십리 고미술 상가가 어찌면 '제2의 을지로', '제2의 성수'로 거듭날 수도 있다는 기대감이 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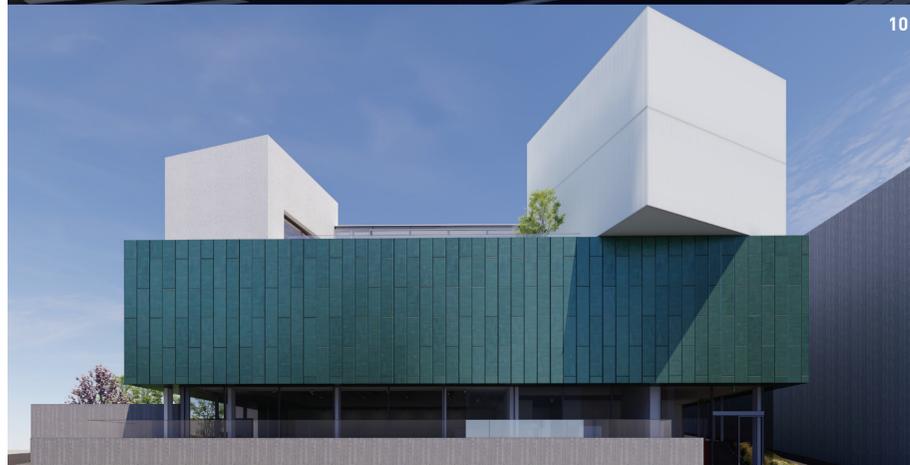
#이름이 주는 존재감, 풍피두센터 한화와 박서보미술관

서서미미술관 개관 이후, 가장 빠른 시일 내에 문을 열 예정인 미술관으로는 '풍피두센터 한화'와 연희동 '박서보미술관'이 있다. 여의도 63빌딩 내 약 3,000㎡(약 9백 평) 규모로 들어서는 프랑스 풍피두센터의 분관인 풍피두센터 한화는 6월 오픈을 목표로 현재 막바지 작업에 한창이다. 개관전으로는 조르주 브라크, 파블로 피카소 등을 필두로 20세기 입체주의를 훑어보는 전시가 준비됐다. 풍피두센터 소장품의 걸작을 중심으로 연대기와 주제에 따라 8개의 섹션으로 나눠 보여줄 예정이다. 박서보 화백이 살아생전 머무르며 작업실과 전시실로 운영하던 연희동 기지 건물 옆에 조성 중인 박서보미술관은 오는 8월 중순 이후 개관을 목표로 하고 있다. 4개 층, 5개 주요 전시 공간으로 구성할 계획이라고. 9월 초 '프리즈 서울' 직전에 전모를 드러낼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페어 기간 한국을 방문할 예정인 전 세계 미술 애호가들의 관심까지 한 몸에 받고 있다. 사실 '이름'의 힘이 강력한 문화 공간 오픈 소식은 늘 큰 기대를 모으는 동시에, 방식과 규모, 지속 가능성에 대한 의문도 함께 불려온다. 정확한 평가는 베일이 걷히고 나서야 가능하겠지만, 그림에도 부정할 수 없는 한 가지 긍정적 효과는 '예술과 거리를 두던 이들까지도 시간을 내 찾아가게 만든다'는 점이다. 미술관은 예술 애호가의 전유물이 아니라 모두에게 열려 있는 공간이며, 예술과 무관했던 삶에 작은 균열을 만드는 것 또한 그 역할의 일부다. 그런 점에서 대중의 발걸음을 이끌어낸다는 사실만으로도 이들 공간의 존재 이유는 어느 정도 확보된다. 또 이는 곧 이제 막 윤곽을 드러내며 각자의 방식으로 국내 문화 예술 지형을 다시 그리고 있는 이 공간들에 우려보다 설렘이 앞서는 이유이기도 하다.

글 양혜연(객원 에디터)

- 8 답십리 고미술 상가는 미술 애호가들에게도 미지의 세계다. Photo by 양혜연
- 9 6월 개관을 앞두고 막바지 준비에 한창인 '풍피두센터 한화'. 개관전으로 20세기 입체주의를 조망하는 전시를 준비 중이다. 이미지 제공_한화문화재단
- 10 박서보 화백이 살아생전 머무르며 작업실과 전시실로 운영하던 연희동 기지 건물 옆에 조성 중인 '박서보미술관'은 '프리즈 서울'이 개막하기 직전에 개관할 것으로 예측된다. 이미지 제공_박서보재단

※ 5~6 이미지 제공_신안군





New World

2019년에 처음 출시된 '클래쉬 드 까르띠에'는 피코(Picot) 비즈와 끌루 까레(Clous Carré) 스티드 장식이 어우러져 서로 대립하는 디자인을 조화롭게 풀어낸 것이 특징이다. 자유로운 파리의 감각과 기하학적인 아름다움을 매력적으로 구현하며 까르띠에 아이콘 컬렉션의 계보를 이어왔다. 이제는 하나의 대표 컬렉션으로 탄탄히 자리매김한 클래쉬 드 까르띠에가 다양한 컬러 스톤과 오톤스 등을 만나 또 한번 진화한다. 더 유연해지고 컬러풀해지면서 스타일리시한 감성을 더하며 다채로운 매력을 선사하는 뉴 클래쉬 드 까르띠에의 세계.

“

클래쉬 드 까르띠에에는 20세기 초부터 까르띠에가 추구해온 전통적인 주얼리 코드에 대한 변주와 독창적인 미학 언어를 그대로 반영한 컬렉션이다”

옐로 골드로 구현한 새로운 움직임

클래쉬 드 까르띠에의 옐로 골드는 핑크 골드와는 확연한 컬러 차이를 지닌다. 클래쉬 드 까르띠에만의 볼륨감과 육감적인 매력을 한층 배가하는 것. 또 일부 버전에서는 두 줄 구조로 선보이며 형태적으로도 볼륨을 키웠다. 이 볼드한 매력의 피스들은 두 가지 전문적인 노하우를 토대로 완성했다. 하나는 전통 주얼리 메이킹에서 유래한 로스트 왁스 주조(lost-wax casting) 기법이며, 다른 하나는 최대 6백여 개의 정밀한 구성 요소를 조립해 착용자의 편안한 착용감을 보장

하는 초정밀 가공 기술이다. 각각의 피스는 수작업으로 폴리싱해 장인 정신을 보여준다. 또 마디 처리한 요소들의 기발한 조합 역시 관전 포인트. 모든 부분이 서로 연결되어 있지만 하나하나 자유롭게 움직이는 유연함을 갖추었다. 이 섬세한 움직임은 미세한 떨림을 만들어내는데, 이는 개발 과정에서 아름다운 소리로 구현되도록 세심하게 조율하고 최적화한 결과다.

새로운 컬러와 사이즈

클래쉬 드 까르띠에는 컬러로 또 한번 확장을 시도했다. 다양한 컬러 스톤과 오톤스를 매치해 또 다른 느낌을 완성한 것. 여기에 한층 대담해진 XL 사이즈와 조절 가능한 착용 방식을 더하며 각 피스 고유의 스테드 구조 메시지를 새로운 차원으로 확장했다. 이번 에 사용된 컬러 스톤에는 레드 컬러를 입힌 아게이트, 그린 컬러의 아게이트, 그리고 핑크 컬러의 칼세도나가 있다. 여기에 오톤스의 블랙이 더해져 까르띠에의 미학을 한층 풍성하게 한다. 스톤 세팅 방식 역시 평범함을 거부한다. 하드 스톤 비즈를 핑크 골드 스테드 사이에 교차로 배치한 디자인은 반지와 펜던트, 귀고리의 건축적 볼륨감을 선사하고, 컬러 스톤을 스톤 규격 기준과 엄격한 컬러 그레이딩 차트 안에서 밀리미터 단위로 정교하게 배열해 조화로운 색감을 구현했다. 이번 클래쉬 드 까르띠에는 새로운 고정 방식을 적용했다. 컬러 스톤을 뚫어 끌루드 파리(clou de Paris) 핀으로 고정한 것. 이는 골드 버전보다 2배의 구성 요소가 필요하며,



1 새로워진 클래쉬 드 까르띠에 링과 브레이슬릿 네크리스를 착용한 캠페인 비주얼 속 모델. 2 핑크 골드에 각각 그린·레드 아게이트와 핑크 칼세도나, 오톤스를 세팅한 클래쉬 드 까르띠에 링. 3 오톤스로 볼륨감과 임팩트를 강조한 네크리스를 착용한 캠페인 비주얼 속 모델. 4 핑크 골드에 오톤스를 세팅한 클래쉬 드 까르띠에 링. 5 스몰 모델, 핑크 골드 클래쉬 드 까르띠에 브레이슬릿.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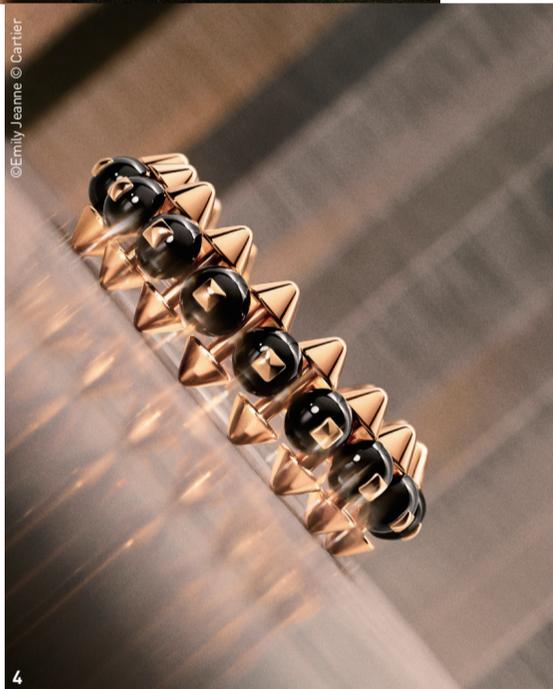
3

기계적인 체결 방식과 사람의 손으로 조정하는 방식을 번갈아 사용해야 하기에 매우 복잡하고 섬세한 공정이다. 따라서 극도로 정밀한 작업을 요한다.

세련미를 완성하는 오톤스 스테드

클래쉬 드 까르띠에는 XL 사이즈를 선보이며 더욱 확장된다. 여기에 오톤스 스테드로 업그레이드까지 마쳤다. 이들은 완벽하게 유연한 옐로 골드 브레이슬릿과 네크리스, 그리고 스리

©Emily Jeanne © Cartier



4

핑거 링에 안착해 세련미를 부여한다. 또 메종의 위대한 주얼리 전통을 이어받아 이번 클래쉬 드 까르띠에에서 변형 가능한 피스를 선보인다. 핑크 골드 또는 화이트 골드로 만든 클래쉬 드 까르띠에 멀티웨어 이어링이 바로 그것. 2개의 유연한 라인으로 이뤄져 착용할 때 귀고리를 드러내는 방향에 따라 서로 다른 매력을 선사한다. 일반적인 귀고리처럼 앞쪽으로 보여줄 수도 있지만 앞쪽과 뒤쪽, 언밸런스 등 다양한 방식으로 연출 가능하다.

클래쉬 드 까르띠에는 20세기 초부터 까르띠에가 추구해온 전통적인 주얼리 코드에 대한 변주와 독창적인 미학 언어를 그대로 반영한 컬렉션이다. 이번 새로운 클래쉬 드 까르띠에 피스들 역시 이 계보를 이어간다. 강렬하고 독창적이면서도 고귀함과 우아함을 연출하고 싶다면 클래쉬 드 까르띠에가 해답이다.

©Emily Jeanne © Cartier



5



© Cartier © Kayla Connors

1

Cartier with Olivia Dean

올리비아 딘

지난 2월 까르띠에는 클래식 까르띠에의 새로운 캠페인 화보를 영국 싱어송라이터 올리비아 딘(Olivia Dean)과 함께했다. 그래미 어워드 수상에 빛나는 히트곡 'Man I Need'와 'OK Love You Bye'로 전 세계적인 인기를 얻고 있는 그녀는 클래식 까르띠에 신제품을 착용한 화보에서 센슈얼하면서도 개성 있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또 그녀의 최신곡 'So Easy (To Fall in Love)' 뮤직비디오에서는 까르띠에의 주얼리를 착용한 모습도 공개되었다. 그녀가 새로워진 클래식 까르띠에 컬렉션을 사랑하는 이유를 들어보았다.



© Cartier © Kayla Connors

2

“

새로운 클래식 드
까르띠에 컬렉션에서
제가 가장 좋아하는
점은 컬렉션이
지닌 장난기 있는
매력이예요”

1 핑크 칼세도니와 그린 아게이트 등 컬러 스톤을 세팅해 더 다채로운 클래식 드 까르띠에 이어링, 네크리스, 링을 착용한 올리비아 딘.
2 핑크 골드, 오닉스를 세팅한 클래식 드 까르띠에 이어링과 레드-그린 아게이트와 오닉스를 세팅한 클래식 드 까르띠에 링을 착용한 올리비아 딘.
3, 4, 5, 6 새로운 클래식 드 까르띠에 컬렉션의 주얼리를 착용하고 포토제닉한 모습을 보여주는 올리비아 딘의 화보 촬영 비하인드 신.



3

© Cartier © Abena Appiah



4

© Cartier © Abena Appiah



© Cartier © Abena Appiah

5

Q. 새로운 클래식 드 까르띠에 컬렉션에서 가장 좋아하는 점은 무엇인가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점은 컬렉션이 지닌 장난기 있는 매력이예요. 비즈의 움직임이 전체에 시원하면서도 촉각적인 느낌을 더해 주죠. 과학에 애 쓰지 않으면서도 대담한 분위기가 있어요. 또 최근에 나온 새로운 피스들은 크기가 더 대담해지거나 예상치 못한 컬러 포인트가 더해져서 훨씬 신선하게 착용할 수 있어요.

Q. 올 골드, 오닉스, 핑크 칼세도니, 레드 또는 그린 아게이트 중 어떤 것에 더 끌리시나요?

컬러가 돋보이는 것도 좋아하지만, 저는 항상 올 골드 스타일에 손이 가요. 어떤 스타일에도 잘 어울리고, 아이코닉하면서도 시대를 타지 않는 매력이 있다고 생각해요.

Q. 일상이나 특별한 자리에서 주얼리를 어떻게 스타일링하시나요?

평소에는 단순하게 스타일링해요. 몇 개의 반지나 작은 후프 이어링을 레이어링해서 제 스타일처럼 자연스럽게 보이도록 하죠. 차려입어야 할 자리에서는 룩을 한층 돋보이게 해줄 대담한 피스를 선택하지만, 그래도 자연스럽게 느껴지길 원해요. 골드 이어링은 항상 착용해서 어느새 제 시그니처 같은 아이템이 되었죠. 전체 스타일을 하나로 묶어주는 느낌도 있어요.

Q. 까르띠에처럼 전설적인 매종과 함께 일하는 것은 어떤 경험인가요?

정말 특별한 경험이에요. 까르띠에는 역사와 창의성이 훌륭하게 어우러진 브랜드라고 생각해요. 전통을 존중하면서도 여전히 현대적인 감각을 유지하고 있죠. 또 개인의 개성을 진정으로 존중하고 기념하는 브랜드라는 점도 좋아요. 저와도 잘 맞는 파트너라는 느낌이 들고, 그 일원이 된 것이 자랑스럽습니다.

문의 1877-4326 에디터 성정민

6

© Cartier © Abena Appiah



(위부터 차례대로) 쇼파드 아이스 큐브 링 얼음 큐브에서 영감을 디자인의 주얼리 컬렉션으로 더 볼드하고 현대적인 셰이프로 업그레이드된 것이 특징. 18K 에티컬 로즈 골드에 다이아몬드 0.46캐럿을 세팅해 완성했다. 1천3백82만원. 문의 02-6905-3390

반클리프 아펠 럭키 스프링 버터플라이 비트윈 더 핑거 링 매화꽃과 은방울꽃 봉오리, 매혹적인 나비 등으로 봄의 시작을 알리는 브랜드 대표 컬렉션. 새로운 컬러 스톤인 블루 컬러 라피스 라줄리와 아게이트를 세팅해 생동감을 더했다. 가격 미정. 문의 1877-4128

포멜라토 투게더 링 3개의 골드 밴드를 다이아몬드 파베 세팅 링크로 감싸 기존의 링보다 디자인적 볼륨감을 극대화했다. 가격 미정. 문의 0030-8321-0441

까르띠에 클래쉬 드 까르띠에 링 2019년 처음 등장해 화제를 불러일으켰던 독특한 디자인의 주얼리 컬렉션. 핑크 골드에 핑크 칼세도니를 세팅해 특별함을 더했다. 9백만원대. 문의 1877-4326

부쉐론 콰트로 레디언트 그로그래프 고드롱 링 클래식하고 독창적인 디자인으로 다양한 변주를 선보이는 콰트로 컬렉션은 수년간 매종의 아이콘으로 자리 잡아왔다. 기존 네 가지 밴드에서 그로그래프 스타일의 밴드만 남겨 간소화한 디자인의 18K 옐로 골드 링 2백62만원대. 문의 080-822-0250

피아제 포제션 링 중앙 밴드가 회전하는 디자인으로 영원한 사랑을 상징하는 대표 주얼리 컬렉션. 기존 18K 로즈 골드 디자인에 다이아몬드뿐 아니라 각종 컬러 사파이어와 그린 차보라이트, 핑크 루비 등으로 유니크함을 부여했다. 2천3백20만원. 문의 1877-4275

샤넬 파인 주얼리 코코 크러쉬 링 아이코닉한 디자인을 변형해 기존 코코 크러쉬 링보다 더 슬림하고 여성스러운 무드를 자아낸다. 퀄리티 디테일의 C 모티브에 다이아몬드를 세팅했다. 가격 미정. 문의 080-805-9628

에디터 성정민

The Next Icon

끊임없이 진화하는 불멸의 아이콘 링 컬렉션.

PHOTOGRAPHED BY PARKJAEYONG

Be a Gentleman

절제된 디자인과 간결한 세이프프로 호트리즘 없는 슈트 핏을 완성해줄 럭셔리 드레스 워치.

PHOTOGRAPHED BY PARK JAEYONG



(왼쪽 위부터 시계 방향으로) IWC 포르토포노 오토매틱 완벽한 균형과 형태로 시대를 초월한 우아함을 지닌 워치. 화이트 다이얼에 스리 핸드와 은은한 데이트 디스플레이로 간결한 아름다움을 선사한다.

8백50만원. 문의 1877-4315 반클리프 아펠 피에르 아펠 지름 38mm 화이트 골드 케이스에 헤니콤 모티프의 화이트 래커 다이얼과 아라비아숫자 인덱스로 완성해 드레스 워치 특유의 클래식한 무드를 발산한다. 57시간 파워 리저브를 제공하는 매뉴얼 와인딩 메커니컬 무브먼트 830P로 구동한다. 가격 미정. 문의 1877-4128 브레게 클래식 5177 아브라함-루이 브레게가 선호한, 정제된 미학이 잘 드러나는 타임피스로 브레게만의 클래식과 전통이 깊이 스며든 모델. 장인의 수작업으로 작업한 에나멜 다이얼 위 블루 스틸 브레게 핸드가 포인트를 준다. 4천1백만원대. 문의 02-6905-3571 바쉐론 콘스탄틴 패트리오니 매뉴얼 와인딩 브랜드의 확고한 미니멀리즘이 담긴 절제된 디자인에서 나오는 우아함과 품격이 느껴지는 워치 컬렉션. 지름 39mm로 다운사이징되어 드레스 워치로 적합하다. 18K 화이트 골드 소재 케이스에 은은한 반짝임이 살아 있는 실버 톤 다이얼을 매치했다. 칼리버 1440으로 작동한다. 4천1백20만원.

문의 1877-4306 쇼파드 L.U.C XPS 절제된 우아함이 특징인 워치 컬렉션으로 지름 40mm의 루센트 스틸™ 케이스에 퓨어한 화이트 다이얼을 매치했다. 인텍스는 심플하고 세련된 바 형태로 마무리하고 울트라-신 셸프 와인딩 기계식 무브먼트 L.U.C 96.50-L을 장착해 얇은 케이스 두께를 자랑한다. 1천9백18만원. 문의 02-6905-3390 예거 르쿨트르 마스터 울트라 신티 세련된 케이스 아래 놀라운 정밀함을 갖춘 타임피스로 고도의 절제된 표현이 매력적이다.

지름 39mm 스틸 케이스에 선레이 브러시드 실버 그레이 다이얼이 묘한 빛을 선사하며, 로듐 플레이트드 소재 바 인텍스로 모던한 미학을 자랑한다. 6시 방향엔 문페이즈를 두어 우아한 매력을 자아낸다. 1천8백40만원.

문의 1877-4201 피아제 알티플라노 오리진 워치 자체 제작 1205P1 울트라-신 기계식 오토매틱 무브먼트로 완성한 워치로 슬림한 케이스가 소매 걸림 없이 자연스러운 연출을 돕는다. 지름 40mm 18K 로즈 골드 케이스에 로듐 도금 골드 아워 마커를 장착한 다이얼로 시선을 사로잡는다. 4천3백만원. 문의 1877-4275 에디터 성정민

스트라이프 톱
20만원대, 베이지
팬츠 40만원대,
스카프 10만원대,
레더 골프화 30만원대.

골프웨어 트렌드에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 필드와 일상을 넘나드는 웨어러블한 스타일이 부상하면서 그 개념이 점차 확장되고 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랑방블랑은 여유로운 실루엣과 기능성을 강화한 소재를 바탕으로 일상과 필드 사이 완벽한 균형을 제안한다. 최근에는 '상상을 현실로'라는 메시지를 품은 2026 S/S 골프 컬렉션을 선보이며 공항과 리조트 등 골퍼의 다양한 라이프스타일을 조명했다. 절제된 로고 플레이와 화이트, 샌드, 세이지, 더스티 블루 등의 컬러 팔레트, 그리고 구조적 디자인이 조화를 이루어 우아함을 배가하고, 브랜드 고유의 정제된 감성을 선명하게 드러낸다. 골프 실력만큼 중요한 아웃핏. 이제 랑방블랑의 골프 컬렉션으로 스타일과 퍼포먼스를 모두 끌어올릴 때다. 문의 1800-5700 에디터 김하얀



Blanc Defined

가벼운 기능성 소재와 활동성을 극대화한 실루엣, 그리고 일상과 필드의 경계를 넘나드는 디자인이 어우러져 새로운 골프웨어의 방향을 제시한다. 라이프스타일 퍼포먼스웨어 브랜드, 랑방블랑(Lanvin Blanc)이 제안하는 골프 룩은 이런 모습이다.



(여자 모델) 민소매 원피스 50만원대, 레더 벨크로 골프화 30만원대, 양말 3만원대,
(남자 모델) 집업 점퍼 50만원대, 팬츠 40만원대, 레더 골프화 30만원대.



선 바이저 10만원대, 윈드브레이커 60만원대.



볼캡 10만원대, 집업 니트 50만원대, 글러브 6만원대.



니트 톱 40만원대, 밴딩 팬츠 40만원대, 레더 골프화 30만원대, 레더 글러브 6만원대 모두 랑방블랑.



Refined Strength

루이스 트로터의 오페라, 보테가 베네타 2026 겨울 컬렉션.

지난 9월, 보테가 베네타(Bottega Veneta)의 새로운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로서 2026 여름 컬렉션을 성공적으로 선보인 루이스 트로터(Louise Trotter). 올 2월 28일, 그녀의 두 번째 챗터인 보테가 베네타 2026 겨울 컬렉션을 공개했다. 지난 쇼에서 보테가 베네타의 탄생 지부터 브랜드가 걸어온 길을 되짚는 의상을 선보인 그녀는, 이번 시즌에는 밀라노 사람들의 라이프스타일과 드레싱 문화에 집중했다. 밀라노 사람들이 과거 오페라와 극장, 그리고 광장에서 만남을 가질 때 입었던 룩의 실루엣이나 편안하면서도 자신감 있는 애티튜드를 위해 멋스럽게 차려입는 태도에서 영감을 받은 것. 이날 쇼에 초대된 많은 프레스와 셀러브리티는 밀라노 중심부인 두오모 근처에 있는 광장으로 모여들었다. 쇼장이었던 팔라초 산 페델레(Palazzo San Fedele)는 많은 밀라노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 위치해 있다. 또 과거 밀라노의 지식인과 예술가가 모이던 역사적인 극장이며, 지금도 문학적 상징의 공간으로 여겨지고 있다. 과거부터 깊은 역사를 쌓아온 이 상징적인 공간을 새로운 보테가 베네타의 쇼장으로 선택했고, 트로터는 이곳을 다시 오페라극장으로 재현했다. 그리고 오페라를 보러 온 밀라노 사람들의 의상을 그녀만의 시각으로 재해석해 쇼에 등장시켰다.

이번 컬렉션에서는 1950~70년대에 유행한 건축양식으로, 구조와 재료를 있는 그대로 드러내는 거칠고 강한 미학이 특징인 브루탈리즘(Brutalism)과 관능성의 대화를 펼쳐낸다. 지난 시즌보다 한층 부드러운 구조적 디자인이 돋보이며, 내면의 아름다움을 감춘 절제된 외관에 섬세한 곡선을 더해 데이웨어의 전형을 여러 방식으로 재해석했다.

의복과 착용자의 긴밀한 연결을 강조하는 테크닉을 구현하거나 피부 위에 또 하나의 피부를 레이어드한 듯한 유희를 선보이기도 했다. 또 실크와 펠 쿠페(Le Coupé), 니트, 테크니컬 섬유를 활용해 퍼를 연상시키는 질감을 의류와 주얼리, 슈즈 전반에 적용해 정교한 라인을 완성함과 동시에 대담한 장식적 디테일을 가미했다. 여기에 오래된 향수를 떠올리게 하는 플로럴 터치와 할머니의 이브닝 백, 아버지가 오래 신은 듯한 구두 등을 의상 곳곳에 더해 젠더와 세대를 아우르는 요소를 형성하며 공동체의 서사를 더욱 선명하게 드러냈다.

쇼의 형태에서도 일관성을 유지했다. 구조적이면서 세련된 실루엣의 블랙 슈트에서 과감한 퍼 형태의 소재와 볼륨감 있는 실루엣의 의상으로 이어지는 쇼는 정제된 미학에서 점차 장엄함으로 고조되는 오페라적 내러티브를 따라간다. 이는 전설적인 오페라 소프라노

1 보테가 베네타 2026 겨울 컬렉션 쇼 피날레.
2 과감한 퍼 디테일과 레드 & 화이트 배색의 아우터가 돋보이는 룩.
3 드라마틱한 블루 퍼 룩.
4 대담하면서도 구조적인 실루엣으로 부드러움을 가미했다.
5 할머니의 이브닝 백에서 영감을 받은 형태의 백.
6 아버지가 오래도록 신은 구두처럼 플랫하고 이지한 디자인의 남성 슈즈.
7 이번 쇼에 참석해 자리를 빛낸 배우 윤여정.

마리아 칼라스(Maria Callas)와 그녀를 자신의 영화에 캐스팅한 영화감독이자 시인, 소설가 피에르 파올로 파솔리니(Pier Paolo Pasolini)가 그려낸 급진적 예술과 비전통적 사랑을 환기한다. 우리는 모두 보테가 베네타와 크리에이티브 디렉터 루이스 트로터, 그리고 장인들이 만들어낸 오페라에 초대받은 셈이다. 이처럼 이번 컬렉션은 집단적 표현에 바치는 헌사다. 즉 마음과 정신, 그리고 손이 어우러져 완성되는 경이로운 협업에 대한 찬사이며, 그 순간에 초대된 경험이다. 이날 보테가 베네타는 광장 앞 스크린에 크게 화면을 띄워 바깥 관객들까지 쇼를 관람할 수 있도록 했다. 그 뿐 아니라 한국 대표 배우 윤여정과 스트레이 키즈 아이언을 비롯해 줄리언 무어(Julianne Moore), 서기(Shu Qi), 데이지 에드거-존스(Daisy Edgar-Jones), 비키 크리프스(Vicky Krieps) 등을 초청했다. 세대와 젠더를 넘어 모두가 한데 어우러져 완전한 예술적 유대감을 형성한 이번 보테가 베네타 2026 겨울 컬렉션 쇼는 문화와 예술, 그리고 사람이 만나는 공동체의 장과도 같았다. 영화나 오페라의 다음 시리즈가 궁금해지듯, 다음번 루이스 트로터가 이어갈 또 다른 챗터가 더욱 궁금해진다. 문의 02-3438-7694
에디터 성정민



Perfection Frames

패턴이 돋보이는 프레임부터 클래식한 디자인까지,
선명한 컬러와 입체적인 실루엣으로 시선을 끄는 아이웨어.
PHOTOGRAPHED BY **CHOI MIN YOUNG**

(오른쪽 위에서 시계 방향으로) 브라운과 옐로 톤이 조화를 이루는 아이코닉한 체크 패턴이 돋보이는 디자인으로 데일리 룩에 세련된 분위기를 부여한다. 33만7천원 **버버리 by 에실로룩스티카**. 문의 02-569-3914. 슬림한 오벌 실루엣에 산뜻한 컬러감을 가미한 비슬로 L1. 부드러운 라인과 가벼운 인상이 스타일리시함을 배가한다. 30만원 **젠틀몬스터**. 문의 070-4128-2122. 슬림한 스퀘어 실루엣에 브라운 톤을 입힌 LV 에센셜 스퀘어. 은은한 그라데이션 컬러가 어우러져 모던한 매력을 선사한다. 가격 미정 **루이 비통**. 문의 02-3432-1854. 베이지 톤의 반투명 컬러가 돋보이는 마델론. 미니멀한 실루엣과 담백한 디자인이 차별하고 세련된 인상을 연출한다. 53만4천원 **올리버 피플스 by 에실로룩스티카**. 문의 02-569-3914 양 옆으로 길게 뻗은 형태와 오벌 셰이프가 어우러진 리추얼. 슬림한 실루엣이 가벼운 인상을 주어 멋스러운 데일리 스타일을 완성한다. 23만2천원 **레이벤 by 에실로룩스티카**. 문의 02-569-3914. 부드러운 라운드 실루엣에 블랙 프레임에 조합한 디자인. 템플의 패턴 디테일이 은은한 포인트로 작용해 클래식하면서도 세련된 느낌을 준다. 47만원 **펜디 아이웨어 by 록윅틱스**. 문의 1599-3016. 블랙 캣아이 실루엣의 프레임 상단에 메탈 로고 디테일을 더한 아이웨어. 날렵한 라인과 아이코닉한 장식이 자아내는 우아하면서도 시크한 무드가 매력적이다. 가격 미정 **샤넬**. 문의 080-805-9628. 볼드한 스퀘어 실루엣에 선명한 레드 컬러 프레임이 강렬한 카르티리오 슬림. 간결한 구조와 컬러가 어우러져 스타일에 포인트를 준다. 53만원 **프라다 by 에실로룩스티카**. 문의 02-569-3914. 에디션 한정임

Modern Elegance

유려한 라인과 절제된 구조로 시간이 지날수록 더 깊어지는 우아함을 담은 랄프 로렌 컬렉션의 '더 랄프 미니 크로스 보디 백'.

PHOTOGRAPHED BY PARK JAE YONG



2026 스프링 시즌을 맞아 자동차 디자인에서 영감을 받은 섬세한 디테일을 바탕으로 탄생한 핸드백 '더 랄프(The Ralph)' 라인의 새로운 미니 크로스 보디 백. 간결한 톱 핸들과 탈착 및 길이 조절이 가능한 크로스 보디 스트랩을 갖춰 실용성을 더했다. 또 로고가 새겨진 메탈 플레이트로 장식한 카프 스킨 카벨과 여유로운 내부 수납공간이 특징이다.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멋스러워지는 폴 그레이인 새들 송아지가죽으로 제작했으며, 내부는 부드러운 스웨이드 안감으로 마감해 한층 고급스러운 느낌을 선사한다. 2백80만원대. 문의 02-3467-6560 에디터 성정민

PLAY *the* SPRING

가볍고 섬세하게. 남자들의 지금, 스포링 룩 포트폴리오.
PHOTOGRAPHED BY JUNG JIEUN



캐시미어 크루넥 스웨터 2백95만원, 린 스킨 스트레이트 팬츠 5백70만원 모두 셀린느.



(왼쪽) 헤드랜드 블레이저, 슬루프 크루넥, 후지 팬츠 모두 가격 미정 로로피어나. (오른쪽) 에시 카디건, 크루넥, 후지 팬츠 모두 가격 미정 로로피어나.

(왼쪽) 알파벳 프린티드 리버시블 레인코트 가격 미정, 롱 슬리브드 시그너처 셔츠 1백95만원, 자카르 부트래그 팬츠 가격 미정 모두 루이 비통.
(오른쪽) 리넨 블렌드 더스터 코트 3백29만원, 실크 터틀넥 가격 미정, 블랙스 테일러드 팬츠 1백25만원 모두 페라가모.





모노그램 체크 셔츠 2백54만원, 플이필 코트 셔츠 1백48만원, 코트 터틀넥 1백15만원, 코트 팬츠 1백15만원, 베라 레저 스웨이드 스니커즈 88만원 모두 몽클레르 컬렉션.

V넥 코튼 니트 톱 1백29만원, 스트라이프 플로린 폴로셔츠 89만원, 코튼 이너 톱 가격 미정, 버진 울 쇼츠 1백19만원 모두 토즈.





(왼쪽) 더블브레스트 재킷 가격 미정, 셔츠 가격 미정, 테일러드 팬츠 가격 미정, 카프 스킨 물 1백30만원, 마이크로 긴치니 프린트 실크 타이 35만원, 실크 스카프 75만원 모두 페라기오.
(오른쪽) 임브로이더드 시그니처 싱글브레스트 재킷 5백12만원, 롱 슬리브드 시그니처 셔츠 1백95만원, 울 부트레그 팬츠 1백95만원, LV 테일러드 스니커즈 1백77만원 모두 루이 비통.

(왼쪽) 그린 라벤 & 캐시미어 슬리브리스 톱, 브라운 카프 스킨 펜츠 모두 가격 미정 에르메스, 카프 스킨 물 1백39만원 페라가모,
(오른쪽) 베이지 램 스킨 재킷, 브라운 코튼 & 실크 셔츠, 라이트 베이지 팬츠, 블랙 슈즈, 카프 스킨 스카프 모두 가격 미정 에르메스.





토즈 02-3438-6008
몽클레르 컬렉션 0030-8321-0794
셀린느 1577-8841
디올 02-3280-0104
페라가모 02-3430-7854
루이 비통 02-3432-1854
에르메스 02-542-6622
로로피아나 02-6200-7799

올리브 컬러 맨 트렌치코트 가격 미정, 북 카버 자수 맨 셔츠 2백30만원, 디올 자수 카고 맨 팬츠 2백30만원, 로디 레이스업 맨 부츠 1백60만원 모두 디올.
헤어 김우준 메이크업 조혜민 (Gost Agency), 스타일리스트 채한서

Get



CELINE

3개로 나뉜 수납공간과 강렬한 레드 디자인 포인트다. 길이 조절 가능한 스트랩을 이용해 솔더백과 크로스 보디백으로 활용할 수 있는 램스킨 소재 트리오 플랩 백. 22×14×5cm, 2백30만원 셀린느. 문의 1577-8841

The

HERMÈS

마구에서 영감을 받은 부드러운 곡선 디테일의 구조적 디자인이 특징인 브자스 아틀레 백. 25×19×10cm, 가격 미정 에르메스. 문의 02-542-6622



FENDI

바이올렛 스웨이드 안감이 멋스러운 펜디 웨이 미디엄 백. 36×27×13cm, 5백만원대 펜디. 문의 02-544-1925



CHANEL

가방을 이루는 모든 요소를 골드빛으로 통일해 주얼리 못지않은 영롱함을 선사하는 독특한 셰이프의 스몰 이브닝 백. 11×12.5×5cm, 가격 미정 샤넬. 문의 080-805-9628



List



FERRAGAMO

모던한 디자인으로 다양한 룩에 두루 어울리는 송아지가죽 소재 더블 간치오 백. 21×17×7cm, 가격 미정 페라가모, 문의 02-2140-9666

매일의 순간을 우아하고 특별하게. 장인의 기술력과 각기 다른 독창성으로 빚어낸 16개의 다채로운 백 리스트.

PHOTOGRAPHED BY KIM HEUNG SOO



CHLOÉ

승마에서 영감을 받은 부드럽고 둥근 실루엣이 돋보인다. 체인 디테일의 토글 잠금장치로 손쉽게 여닫을 수 있는 버펠로 가죽 & 스웨이드 소재 벌룬 백. 30×38×13cm, 3백31만원 플로에, 문의 02-6905-3670



LORO PIANA

군더더기 없는 직사각 실루엣에 톱 핸들, 가죽 키 홀더, 더블 지퍼 디테일을 더해 클래식한 맛을 선사하는 송아지가죽 엑스트라 L 23. 23×12×7cm, 5백만원대 로로피아나, 문의 02-6200-7799

LOUIS VUITTON

1934년에 선보인 알마 백을 재해석한 디자인에 플로럴 프린트를 더해 특유의 우아한 분위기를 자아내는 스콰이어 이스트 웨스트 백. 29×14×8cm, 3백79만원 루이 비통, 문의 02-3432-1854



PRADA

트라이앵글 로고와 리나일론
플랩, 롱 핸들이 조화로운
패시지 미디엄 가죽 백,
39×19×12cm, 가격 미정
프라다. 문의 02-3442-1831



CARTIER

레오파드 패턴을 자수와
비즈 장식으로 정교하게
표현한 팬더 C 마이크로 백,
12×10×4cm, 3백만원대
까르띠에. 문의 1877-4326

**RALPH LAUREN
COLLECTION**

말안장 장식에서 영감을 받은 벨트
디테일 등의 디자인에 간결한
2개의 톱 핸들을 추가했다.
탈착 가능한 숄더 스트랩으로
실용성을 높인 폴 그레이인
송아지가죽 소재 더 랄프 미니
토티백. 32×19×10cm, 3백
90만원대 랄프 로렌 컬렉션.
문의 02-3467-6560



LOEWE

오픈 스타일링 시 이 가방의
진가가 발휘된다. 더블
애너그램 로고와 부드러운
카프 스킨 텍스처, 원 톱
핸들이 만난 아마조나 180
미니 백. 18×11×7.5cm,
가격 미정 로에베.
문의 02-3479-1785



BOTTEGA VENETA

패디드 인트레치아토 워빙으로
완성한 램 스킨 소재 베이비
베네타 백, 24×23×3cm,
가격 미정 **보테가 베네타**,
문의 02-3438-7694



ETRO

옐로 컬러 블로킹을 가미한
건축적 디자인의 캔버스 소재
벨라 백, 42×30×20cm,
가격 미정 **에트로**,
문의 1899-2939



MIU MIU

기하학 패턴의 실크 스카프
35×137cm, 볼링 백에서 착안한
디자인과 유연한 실루엣의 보 백
23×11×8cm, 모두 가격 미정
미우미우, 문의 02-541-7443



TOD'S

신발의 밑창 모티브를 활용했다.
독특한 메탈 엠보싱 디테일을
적용한 카프 스킨 메탈 도트백,
21×24×8cm, 2백17만원
토즈, 문의 02-3438-6008



Men's Strategy

남자의 피부도 스중하다.
두껍고 거친 피부에 섬세한 타치를
다해줄 맨즈부터 아이템.
PHOTOGRAPHED BY
PARK JAE YONG

(왼쪽 위부터 시계 방향으로) 시슬리 시슬리움 포 맨 리바이탈라이징 토닝 로션 선인장꽃 추출물이 피부결을 정돈해 면도도 거칠어진 남성 피부를 매끈하게 가꿔준다. 또 비타민 B₃ 성분이 피부 장벽 기능을 강화해 건강한 피부로 탈바꿈시킨다. 150ml 23만원. 문의 080-549-0216

라부르켓 311 굿나잇 립밤 비즈 왁스, 아몬드 오일, 코코넛 오일 등 식물 유래 성분을 담아 영양 공급과 보습 증진 효과로 밤사이 입술을 보호한다. 14g 2만7천원. 문의 1644-4490

샤넬 CC 크림 수퍼 액티브 컴플리트 코렉션 SPF 50 스킨케어 활성 성분과 정교한 피그먼트, UV 필터까지 함유해 한 번만 발라도 자외선 차단은 물론 가벼운 피부 보정까지 자연스럽게 가능한 울인원 크림 30ml 8만7천원. 문의 080-332-2700

키엘스 웨이셜 퓨얼 모이스처라이저 흡수가 빠른 촉촉한 제형으로 피부에 즉각적으로 수분을 공급하는 남성 피부 전용 로션. 멘톨과 카페인 추출물이 쿨링감을 주어 하루 종일 피부가 상쾌하고 건강한 느낌을 주며 비타민 C와 E를 풍부하게 함유해 피부에 영양을 공급한다. 200ml 8만원. 문의 080-801-3302

이솝 셰이빙 브러쉬 최상급 실버팁 등급의 인조섬유를 사용해 영국에서 핸드메이드로 제작한 셰이빙 전용 브러시로 탄탄하면서도 부드러운 질감이 모든 피부 타입에 데일리로 사용하기 좋다. 8만5천원. 문의 1800-1987

이솝 세이지 앤 징크 페이스럴 하이드레이팅 로션 SPF 15 노화의 주범인 자외선 차단을 좀 더 가볍게 도와줄 선 로션. 토코페롤 아세테이트와 토코페롤 조합이 피부에 부담 없이 비타민 E를 전달하며, 세이지 리프 추출물이 보습과 정화 작용을 도와 스킨케어 효과까지 누릴 수 있다. 50ml 6만9천원. 문의 1800-1987

크리스찬 디올 샴푸 디올 소바쥬 하이드레이팅 샴푸 대담함과 강인함을 담은 남성적 향의 전형인 디올 소바쥬 퍼퓸 라인에서 출시한 샴푸. 건조한 느낌 없이 모발을 깨끗하게 클렌징하고 부드럽게 가꿔주며, 상쾌한 사용감과 정교한 포물러로 남성들의 헤어 리추얼을 완성한다. 250ml 7만9천원. 문의 080-342-9500

르 라보 멀티 퍼포즈 밤 피부를 편안하고 부드럽게 가꿔주는 멀티 밤으로 시어버터, 망고 시드 버터, 코코 버터를 함유한 식물성 포물러로 완성했으며 볼, 손, 발, 팔꿈치 등 건조한 부위 어디에나 사용 가능하다. 25g 3만원. 문의 1544-1345

시세이도 맨 토탈 리바이탈라이저 아이 N 시세이도만의 독자적인 NEW Rice Bran Technology™로 남성 피부의 주름, 칙칙한 톤, 거친 피부결, 두드러진 모공, 탄력 저하 등 피부 노화 증상을 개선한다. 눈에 집중적으로 영양 성분을 전달해 다크서클을 완화하는 남성용 아이 크림 15ml 5만8천원. 문의 080-564-7700

에디터 성정민

Ultimate Skin Revival

샤넬의 프리미엄 안티에이징 라인, 수블리마지가 한층 완벽해졌다. 새롭게 선보이는 수블리마지 르 바움 (SUBLIMAGE LE BAUME)은 노화와 다양한 외부 자극으로 지친 피부, 특히 피부과 시술 이후 민감해진 피부를 빠르게 진정시키는 프리미엄 리커버리 밤이다. 풍부한 영양과 활력을 부여해 컨디션을 최상으로 끌어올려 건강한 피부로 가꿔준다. 하루가 다르게 매끄럽고 어려 보이는 피부를 원한다면 이보다 완벽한 선택지는 없다.

PHOTOGRAPHED BY **PARK JAEYONG**



샤넬 수블리마지 르 바움
50g 70만원, 리필 63만원.

나이가 들수록 환절기 일교차나 미세먼지 같은 외부 자극에 피부 장벽은 쉽게 흔들리고, 모공은 여러 방향으로 늘어나며 주름은 점점 깊어진다. 이를 빠르게 개선하고자 다양한 피부과 시술을 시도하지만, 그 과정에서 맞닥뜨리는 건 오히려 예민하고 약해진 피부다. 결국 건강한 피부 컨디션을 되찾기 위해서는 빠른 회복과 본연의 힘을 동시에 케어할 수 있는 차별화된 성분이 필요하다. 샤넬 뷰티가 야심 차게 새로 선보인 수블리마지 르 바움은 브랜드에서 직접 개발한 고농축 활성 성분을 함유해 피부 관리 후 약해진 피부를 즉각적으로 케어한다. 여기서 말하는 고농축 활성 성분은 바닐라 플레니폴리아로 수블리마지 전 제품에 적용된 핵심 성분이다. 샤넬 연구소가 수년간의 연구 끝에 완성한 폴리프렉서닝 공정을 거쳐 탄생했으며, 최초 원료보다 약 40배 더 농축되어 피부 깊숙이 스며들면서 활력과 본연의 힘을 강화해준다. 즉 수분부터 탄력, 균일함, 광채까지 모든 피부 고민에 집중적으로 작용해 동안 피부로 가꿔준다. 세라마이드와 비타민 B₅까지 추가해 피부 진정과 장벽 강화에도 탁월하다. 텍스처 또한 독보적이다. 피부에 닿는 순간 실크처럼 부드럽게 감싸는 풍성한 밤 제형으로, 크림보다 진하고 매끄럽게 흡수되어 피부를 편안하게 한다. 수분 공급 효과가 뛰어난 모이스처라이징 토너 수블리마지 라 로씨옹, 피부 탄력 증진을 돕는 수블리마지 르 세럼, 그리고 프리미엄 고농축 리페어 오일 세럼 수블리마지 렉스트레와 함께 리추얼로 사용하면 효과를 더욱 극대화할 수 있다. 특히 수블리마지 렉스트레는 무향 포뮬러로 민감한 피부에도 부담 없이 사용할 수 있어 수블리마지 르 바움과 리커버리 듀오로 추천한다. 매일 아침과 저녁, 스킨케어 마지막 단계에 부드럽게 도포하면 집에서든 고급 스파 케어를 받는 듯, 특별한 경험을 만끽할 수 있다. 문의 080-805-9638
에디터 김하얀

Editor's Pick

은은한 핑크 톤 블러셔와 립, 피부결을 정돈하는 클렌징, 공간에 향을 더하는 프레이그런스까지.

지금 주목해야 할 이달의 뷰티 리스트.

PHOTOGRAPHED BY YOON JIYOUNG

RADIANCE RESET

글루타넥스 글로우부스터
미백에 진심이라면 주목. 낮에는 멜라닌 활성화를 차단하고 밤에는 피부 컨디션을 회복시켜준다. 50ml 5만4천9백원. 문의 02-2658-2408
_by 에디터 김하얀



디프티크 오르페옹 헤어미스트 카멜리아 오일을 함유해 윤기 나는 머릿결을 완성하고, 싱그러운 시트러스 우디 향으로 기분 전환까지 책임진다. 30ml 10만7천원. 문의 02-3446-7494 _by 에디터 김하얀

상테카이 플라밍고 립스틱
스텔라 히알루론산을 함유해 촉촉하고 부드러우며, 은은한 컬러감에 발색도 좋은 편. 가볍게 바르기 좋아 자연스럽게 맑은 립을 선호하는 이에게 추천. 2.5g, 8만7천원대. 문의 070-4370-7511
_by 인턴 에디터 김지현



리버티 뷰티 홈 프래그런스 캔들 컬렉션
버터필드 센티드 캔들 베르가모트와 파출리 스템, 시더 리프가 조화를 이루는 차분한 향으로, 힐링의 순간이 필요할 때 제격이다. 200g 가격 미정. 문의 080-363-5454
_by 에디터 신정임



SKIN PERFECT

크리스찬 디올 뷰티 NEW
디올 포에버 스킨 웨어 퍼펙션 파운데이션 0.5N
가볍고 촉촉한 텍스처로, 결점을 자연스럽게 커버하고, 지속력까지 좋아 하루 종일 최상의 피부결을 연출해주는 느낌. 30ml 9만8천원대. 문의 080-342-9500
_by 에디터 신정임



로라 메르시에 블러쉬 컬러 인퓨전 듀오 차이 않고 투명한 피그먼트가 들뜸 없이 은은한 발색을 돕는다. 5g 6만8천원대. 문의 1644-4490
_by 에디터 성정민



오피신 유니버설 볼리 시어버터 피부 재생을 돕는 비타민 A를 풍부하게 함유한 밤 타입 크림. 피부는 물론 팔과 발뒤꿈치 등 건조한 부위 어디에나 사용 가능하다. 50ml 9만9천원. 문의 031-688-5551
_by 에디터 성정민

샤넬 뷰티 N°5 오 드 뚜왈렛 가볍고 산뜻해 데일리로 쓰기 좋고 은은하게 퍼지면서 잔향도 오래 남는 편. 알데하이드에 장미와 재스민, 샌들우드와 베티베르가 중성적인 우디 플로럴 향을 완성한다. 75ml, 24만8천원. 문의 080-805-9638
_by 인턴 에디터 김지현

FRESH CLEAN

라곰 셀럽 젤 투 워터 클렌저 거품이 나지 않아도 부드러운 수분 젤이 모공 속 노폐물을 씻어주며 촉촉함까지 더해줘 세안 후 땅김 없이 산뜻한 마무리감을 선사한다. 220ml 1만9천원. 문의 1577-5729 _by 에디터 신정임





1 로로피아나 엑스트라 소프트 백

로로피아나가 2026년 S/S 시즌을 맞아 엑스트라 백을 보다 부드럽고 슬림한 실루엣으로 재해석한 엑스트라 소프트 백을 출시한다. 이번 신제품은 탈착 및 길이 조절이 가능한 스트랩을 이용해 숄더백과 크로스 보디로 연출 가능하며, 가죽 키 링과 기어라 참, 골드 톤 패들 록 디테일을 더해 완성했다. 문의 02-6200-7796

2 랑방블랑 레더 텍스처 트롤리 캐디 백

랑방블랑의 '레더 텍스처 트롤리 캐디 백'은 리얼 레더의 주름과 광택, 크랙 텍스처를 재현한 백이다. 상단에는 스냅 버튼 여밈의 후드 커버를 달았고, 내부는 클럽을 안정적으로 정리할 수 있도록 5분할 구조로 설계했다. 절제된 컬러 조합이 돋보이며, 수납 공간을 균형 있게 배치해 실용성을 높였다. 문의 1800-5700

3 랄프 로렌 컬렉션 파커 리넨 재킷

랄프 로렌 컬렉션이 2026 봄 시즌을 맞아 라이트 텐 컬러의 '파커 리넨 재킷'을 출시했다. 승마복에서 영감을 받은 해킹 포켓과 크라운 장식 버튼이 포인트이며, 고급스러운 리넨 소재로 제작해 클래식한 무드를 배가했다. 문의 02-3467-6560

4 더 캐시미어 더 캐시미어 CLUB 15

더 캐시미어에서 2026 'CLUB 15' 컬렉션을 제안한다. 브랜드가 탄생한 2015년과 우아한 클래식의 본질을 담아낸 이번 컬렉션은 뮤트한 컬러 팔레트와 정교한 테일러링, 부드러운 실루엣을 통해 시간이 지나도 변치 않는 브랜드의 가치를 조명한다. 문의 1800-5700



5 브라이틀링 내비타이머 B01 크로노그래프 43 애스턴 마틴 아람코 포뮬러 원 팀 에디션

브라이틀링이 애스턴 마틴 F1팀과의 협업을 기념해 '내비타이머 B01 크로노그래프 43 애스턴 마틴 아람코 포뮬러 원 팀'을 공개했다. 애스턴 마틴 레이싱 그린과 라임 컬러 포인트, 경량 티타늄 케이스, 카본 파이버 다이얼 등 레이싱 DNA를 반영했으며, COSC 인증을 받은 크로노미터를 장착해 약 70시간의 파워리저브를 자랑한다. 문의 02-798-9501

6 로에베 플라멩코 클러치 코일 백

로에베의 크리에이티브 디렉터 잭 맥클로와 라자로 에르난데스가 전개한 2026 S/S 컬렉션 쇼에서 오리지널 플라멩코 백을 새롭게 해석해 공개했다. 플라멩코 스커트에서 영감을 받았으며, 골드 피니시 코일 장식의 매듭 디테일이 특징이다. 문의 1670-1180



9 그라프 툴다의 보우

그라프가 툴다의 보우 컬렉션의 신제품을 선보였다. 네크리스와 이어링, 브레이슬릿, 링, 그리고 타임피스까지 만나볼 수 있는 이번 컬렉션은 정교하게 매듭 지은 실크 리본 모티브로 제작했으며, 영원한 사랑과 가족 간의 유대를 표현한다. 문의 02-2150-2320

10 포멜라토 이코니카 컬렉션

포멜라토가 창립 50주년을 기념해 이코니카 밴드 링의 새로운 디자인 2종을 선보인다. 루비·에메랄드·블루 사파이어, 그리고 에미시스트·루비·차보라이트를 조합한 2가지 버전으로 서로 다른 컬러 스톤이 리듬감 있게 이어지며 이코니카 특유의 볼드한 미학을 드러낸다. 문의 02-3449-4061

11 샤넬 뷰티 N°5 오 드 뚜왈렛

샤넬 뷰티가 N°5를 재해석한 'N°5 오 드 뚜왈렛'을 새롭게 출시했다. 장미와 재스민, 일랑일랑이 어우러진 플로럴 부케를 중심으로 알데하이드 노트가 이어지고, 샌들우드와 베티베르가 조화를 이루며 우아하면서도 중성적인 향을 남긴다. 문의 080-805-9638





CHANEL

THE CHANEL 25 HANDBAG